



# 광역일보

KB 국민은행 대구국가산업단지지점 개점 달성2차산업단지 입구 웰빙온천 1층 상담전화 : ☎ 053-617-3371

1996년 7월 11일 창간 제 3139호 대표전화 (053) 253-0000 광고·구독안내 (053) 257-0000

대구 경북 www.dgy.co.kr

오늘의 날씨 대구 -3~7℃ 경북 -7~5℃ 단기 4348리움력 11월 20일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 아듀 2015~ 성주군 삼산리 주민들 눈물 닦아 주지 못하고... 또 한해가 지나갑니다



2015 을유년도 이제 하루 남았다. 올 한해 가장 고통받은 이들이 있다면 바로 성주군 삼산리 주민들이다. 매서운 추위가 살갓을 파고 들지만 오늘도 삼산리 주민들은 투쟁의 거리

로 또 나갔다. 이들에게 있어 폐기물매립장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농사일은 뒤로하고 머리에 투쟁이라는 붉은띠를 동여댔다. 이들에게 있어 고향은 삶의 터전이다. 폐기물매립장에

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농민들의 깊게 패인 주름살은 더욱 늘어만 간다. 한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의 투박한 손에는 힘줄이 굵게 패인채 망연자살하고 있다. 검게 그을린 그들

의 얼굴에는 투쟁 뿐이다. 내내에도 쫓돌시위 해야지 주고받는 이들의 말에 그저 숙연해 질 뿐이다. 그래도 이들에게 있어 희망은 있다. 고통은 절망을 낳았지만 해결책만이 편히 될

수 있다는 주민들 바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로 차오른다. 어느새 떠오른 아침해로 붉게 물든 바다는 그 희망의 색깔이다.

지우현 기자

## 구미 A시의원 취업미끼 검은돈 꿀꺽

구미시의회 '청렴의회'? 기초의원 자질 도마 올라



구미시의회 소속 A의원이 자녀 취업을 미끼로 주민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구미시의회가 전국의 일부 광역·기초 지방의회와 경북의회처럼 지방의원들이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행동강령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원행동강령제정은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0년 제정된 것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하지만 구미시의회는 지방의원행동강령제정 제정을 위해 경북도내 타 시·군 의회의 눈치만 볼 뿐 선뜻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A의원은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 B(62)씨로부터 취업알선을 미끼로 500만원을 계좌 송금 받았다.

당시 B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A의원에게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의원은 아들 취업결과를 물어보는 B씨에게 '알아보겠다', '알아보고 있다'는 예기만 수차례 전달했을 뿐 1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알선해 주지 않았다.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속되자 A의원은 지난 8월 B씨의 계좌로 500만원을 돌려줬다.

이보다 앞서 구미시의회 C의원은 2011년 한 감리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의해 구속됐으며, D의원도 같은 해 스포츠클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됐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은 시의원들의 금품수수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돈을 돌려주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의원들 스스로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행동강령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지방의원행동강령제정 제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협의의 중"이라며 "경북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회의 입장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표준 조례안은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금지 등 5장 30개 조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고,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 동해안 주민숙원사업 소원 풀었네

동해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산-포항고속도로가 29일 개통됐다.

울산포항고속도로는 경주와 포항을 잇는 53.7km 구간으로 총 2조원의 공사비를 투입 2009년 6월 공사가 착수됐다.

양남터널구간(11.6km)은 내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도는 이번 울산포항고속도로 개통으로 울산과 포항 간 운행거리가 20.8km 짧아지고, 주행시간은 28분 단축돼 연간 1304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밤낮 없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경주-울산구간 7번국도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앞으로도 도는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내에는 앞으로 5개의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김성용 기자



## 道, 3대 가속기 기반 본격 출격

기반구축, 연구개발 사업화, 인력양성 등 10대 핵심사업 육성

경북도의 3대 가속기 구축이 완료됐다.

기초·응용연구에서 기술 산업화까지 세계적인 거대과학 기반을 갖춘 유일한 지역이다. 때문에 경북도는 본격적인 가속기 활용사업에 총 매진한다.

도는 29일 인터볼로호텔에서 가속기 기반의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산·학·연·관과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가속기활용 비전과 산업화 전략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공개토론회에서 기반구축, 사업화 지원, 인재양성 등 3대 분야 10대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기반 구축분야 △중소기업 대상으로 산업화를 위한 시험제작, 성능검증,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테스트 베드 구축 △바이오, 의료, 소재부품 등의 기업유치를 위한 '가속기 기반 R&DB 단지 조성' △국가이미지센터 분원(유치) 사업 등이다.

■사업화 분야 전문 빌라인을 설치,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계약업체 유치, 환자치료용 설비 구축을 연계한 신약개발·질병조기진단 △암치료 연구와 치료효과 실험을 위한 양성자 암치료 연구

△바이오, 의료, 에너지, 자동차·기계 부품 등 핵심 부품 소재개발을 지원하는 첨단 신소재 산업 △가속기 구축사업 노후 활용한 첨단 연구장비 국산화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화작물·문화재 성분분석 사업 등이다.

■인력·국제협력 분야 미래인재양성과 해외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포스텍 등에 전문대학원 과정을 신설하는 '전문대학원 및 마이스터고 설립' △세계적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가속기 기반 국제협력' 사업이다.

경북도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산학연관과 지역 시군을 아우르는 '가속기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포럼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2017년 국비 반영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

중심지역(포항, 경주)에 대해서는 지역전략산업(12.16확정)과 연계해 입지·환경규제 특례적용, 세제혜택, 재정지원 등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번 핵심사업 선정에 통해 포항을 바이오·제약산업 가속기클러스터, 경주를 신소재산업 가속기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경산(기계부품), 영천(항공전자), 구미(군수산업), 안동(백신, 바이오) 등을 연결하는 가속기 기반의 산업벨트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총매출액 4조원 2025년까지 벤처기업 40개, 총매출액 4조원, 고용창출 1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

정하고 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3세대의 100억배 밝기(태양빛의 100경배)이며, 1/100조(펨토초영역) 단위까지 연구가 가능한 우리나라 최초의 거대과학 시설로 그 규모는 축구장 크기의 20배에 달한다.

지금까지 총 1만1636건의 과제와 SCI 논문 수 4,864건을 지원했으며 특히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신약개발도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단백질 구조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를 초당 13만Km속도로 가속, 물질의 구조 및 특성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세계 3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가속기이다.

지금까지 총 194개 과제 462명을 지원했다. ■일자리 창출에 최선 신종품 작물(토마토·배·배추) 개량, 자동차 표면처리, 이온빔 조사장치 제작, 보석 발생 기술개발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사람에 비유할 때 방사광가속기는 물질을 관찰하는 '눈'에 해당하고, 양성자가속기는 물질을 조작하는 '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정병용 경북부지사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으로 경북은 3대 가속기를 보유한 세계적인 첨단과학도시 면모를 갖는다. 지금까지 가속기 기반 구축에 힘써 왔으나 지금부터는 산업화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예술특성화대학교(4년제)**  
**대구예술대학교**

2015년 정시모집: 12월 24일~30일  
 2016년 편입모집: 1월 4일~8일

www.dgau.ac.kr | 입학문의 | 054-970-3191



광역일보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2

##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당명 등록시 법적대응할 것”

원외 민주당은 29일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과 관련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등록은 정당법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식적 위법 행위이므로 명칭 사용을 선관위에 불허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당명 등록되면 사법부에 당명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새 당명을 확정했다. ‘민주소나무당’, ‘새정치민주당’, ‘함께민주당’, ‘희망민주당’ 등 5개의 최종 후보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새 당명으로 낙점했다.

김도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는 당명이 표방하는 정치철학·가치 등을 함유하는 구성 단어가 아닌 단순 수식어로서, 민주당으로 혼동하게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은 피하고자 하는 알파한 계산에서 비롯된 덧붙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개정은 본질적으로 민주당 약칭 효과를 노린 정치 공학적 꼼수”라며 “민주당 약칭 효과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치졸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 정부, 내년 28개 부처 91개 실·국·과장급 개방형 선발

인사혁신처는 30일 내년에 모두 28개 부처에서 91개 실·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방형 직위 선발을 통해 고위공무원단 34명, 과장급 57명을 선발한다. 특히 이 중 39개 직위는 경력개발형 직위로서 민간출신을 임용할 계획이다.  
실장급 직위로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이 대표적이며, 국장급으로는 고용노동부·관세청·국도교통부·외교부 감사관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기상청 항공기상청장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과장급 직위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 등이 있다.  
개방형직위 선발에 대한 세부 일정과 응모 자격 등은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스

## 안철수 “마지막 기회… 현 여야 2-3위 다투게 할 것”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3등에서 앞치락뒤치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들을 만나 “야권이 분열하면 표가 나뉘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필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콘크리트 같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내려왔고, 무당층의 정치참여가 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권도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어찌보면 그들의 비율이 특정한 한 정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발언, 무당층에 대한 공약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한 번의 창당과 두 번의 창당을 한다”며 “두 번째 창당이라 시행착오가 적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꼭 제대로 낚은 정치를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는 의사로, 프로그래머로, 경영자로, 교수로, 분절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내 인생이 하나가 됐다고 느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각 분야에서 따로따로 일했던 지식과 경험을 모두를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개각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말하는데 경제부총리가 위기를 풀지 못했느냐”며 “(경제위기라는) 말과 다르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재영입 문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로 있을 때 인재풀을 조사해봤더니 3개 분야가 펑크나더라”며 “경제전문가, IT전문가, 외교전문가 등 핵심적인 부분의 인재가 없었다”며 “그런정당의 수권 가능성을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뉴스스

## 선관위, 20대 총선 대비 연말연시 특별 단속 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출마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000여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 與野, 쟁점법안 타결 시도… ‘합의’ 실패



## ‘31일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 실패

여야는 29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로 앞두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합의문을 도출

해내지는 못했다.  
여당은 앞서 쟁점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릴레이 회동에서 여야간 입장차만 확인했던 쟁점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각 상임위 간사간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

서면서 1시간여만에 빈손으로 끝마쳤다.  
다만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일부 쟁점법안에 대해서 이견을 많이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5법에 대해서는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국회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5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수석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이 배석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서로 조율했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탄소사업진흥법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받겠다고 해서 내일 법사위를 열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먼저

합의가 되면 그것들을 먼저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경우 수정된 문안을 야당에 제시했고, 원샷법도 야당에서 제안한 부분을 주무부처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문제의 키는 어떻게 푸느냐의 숙제만 남았다. 릴레이 협상에서 나왔던, 법안의 쟁점을 풀 수 있는 키는 다 됐다”며 “여야 합의만 되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개별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난 릴레이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수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 받았다”며 “그것을 우리 해당 상임위 간사들에게 전해서 양당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 절차를 더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양당 상임위 간사끼리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추후에 더 만날지를 판단하겠다”며 “31일 본회의는 여야간 합의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 김무성 “단수추천 명시한 당헌 당규는 모순”

친박계 공천특위 위원 겨냥, “확정안된 사항 언론에 흘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당헌·당규에 굳이 단수추천을 명시한 것은 모순”이라며 최근 친박계와 논쟁을 벌인 단수추천 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낮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주요당직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당헌·당규에 나와있는 단수추천 내용을 보면, ‘혼자 지원했거나 다른 후보자들보다 월등한 경쟁력이 있는 경우’라는 건데,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공천확정)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되는 것을 왜 당헌 당규에 넣어놨는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단수추천 규정

이 당헌 당규에 없다”고 말한 자신의 발언이 ‘거짓 논란’으로 번진데 대한 억울함의 표시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단수추천은 전략공천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천기구에 들어간 사람들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정해진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다”며 친박계 특정 인사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안심번호 문제에 대해서도 “안심번호도 언론에 잘못 보도됐다”며 “특위에 나온 전문가들이 안심번호를 하려면 6개월이나 걸린다”며 기술적으로 안된다고 했다. 전문가인 권은희 의원한테 물어봐라. 이번 총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천특위에서는 안심번호의 기술적, 비용적 측면과 정확도 시비 문제를 들어, 이번 총선에서 보조직 수단으로만 검토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돌입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정치적 지지선으로 여겼던 ‘전략공천 제도’가 깨지는 등 친박계에 맥이 밀리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그러나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공천 룰 문제에 대해 “공천특위에 물어보라. 나는 생각이 없다”고 일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위안부 피해자들 “수요집회 계속… 소녀상 이전 당치 않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29일 한 일 위안부 피해자 협상 타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고 있는 수요집회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위안부소녀상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쉼터에서 일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법적 책임”이 빠진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복동(90) 할머니는 “정부가 타결됐다고 하는데 뭘 타결했다는 말이냐”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베 총리가 나서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우리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 마음은 돈이 필요 없다”며 “법적으

로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게 우리들의 원이다. 우리는 타결이 안 됐다”고 호소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번 합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소녀상의 철거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분노했다.  
이용순(88) 할머니는 “(소녀상 이전은) 당치도 않은 거고, 차관도 (면담에서) 안 되는 거라고 했다”며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녀상한테는 아무도 손 못 댄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열여온 수요집회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일본이 진정 마음으로 위안부에 대한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대사관 앞에 와서 공식 사죄를 해야 한다”며 “진실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총선 후보자 “1월14일부터 교양·오락프로 출연금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한 권고사항을 의결, 발표했다.  
29일 방송심의위에 따르면, 권고사항은 방송사에게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선거방송을 제작·편성하는 데 있어 유의사항을 숙지해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이다.  
특히 제21조 후보자 출연 방송제한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2016년 1월14일)부터 선거일

까지 일반 교양·오락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주·주장 또는 이익에 대한 지지·대변·옹호 금지, 대담·토론 참가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 선거결과에 대한 무분별한 예측 보도로 유권자 오도 금지, 후보자 간 비리연루 폭로·불확실한 주장을 보도하기 전 사실 확인, 여론조사보도 관련 규정 준수 등도 권고됐다.

뉴스스

## 이태훈, 달서구청장 보선 출마선언

이태훈(59) 전 대구 달서구 부구청장은 29일 오전 11시 달서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달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청장은 “이제 달서구는 지역을 대표하는 규모에 상응하는 위상과 자부심을 견지하고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며 “36년의 행정경험과 3년 6개월 달서구청 총괄의 경험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야를 운용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면 거대 달서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며 “준비된 달서구청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민들의 에너지를 결집시켜 달서의 재도약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선거공약으로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문화생태계 조성, 창조희망경제 정착, 공공복지체제 구축, 통합적 균형발전 도모 등을 실현하는 ‘희망달서 2030프로젝트’를 내걸었다. 지우현 기자



광역일보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3

## 새해 해맞이 구경 좋지만 '산불조심 하세요'

### 경북도, 연말연시 산불방지 총력 대응

경북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4일간을 '연말연시 산불방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행정력을 모은다.

31일부터 시군별로 진행될 타종행사장과 해맞이 명소에는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일출 시간 전후 입산 김목과 행사장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근

무조로 편성한다.

현재 경북도와 23개 시·군에는 산불'관심'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나 '경계'경보 수준으로 상향해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자(소속직원 1/6)를 늘리고 비상출동태세와 유관기관과 공조를 유지해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다.

한명구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연말연시에 해맞이, 등산을 하고 싶다면 관할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서 입산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하고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국민이 행복한 정부 3.0' 경북 최고



## 경북도, 정부3.0 홍보콘텐츠 경진대회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경북도가 '2015년 정부 3.0 홍보콘텐츠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정부3.0 홍보콘텐츠 경진대회'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3.0의 다양한 성과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알기 쉽게 홍보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회에는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참여, 각 기관이 출품한 동영상, 포스터, 웹툰 등의 정부 3.0 홍보콘텐츠를 대상으로 전문가그룹의 예비심사를 거친 20건의 콘텐츠에 대해 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3건의 콘텐츠가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홍보콘텐츠 경진대회는 지난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7일간의 심사가 이뤄져 이 기간 중 국민 7만700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성과를 이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북도의 홍보콘텐츠는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3.0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으로 '행복한 동행, 경북도 정부3.0'이라는 주제로 도의 대표 우수사례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소개했다.

홍보 동영상에 소개된 우수사례는 △만성적인 일손 부족 농가에 도시의 유휴인력을 연결해주는 지역맞춤 일자리 서비스인 '스마트 공

동두레사업', △마을별 건강지도를 만들어 주민 주도형 통합건강서비스 제공하는 '행복한 우리마을 건강3.0', △민관이 협업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농공단지희망사다리' 사업으로 모두 정부3.0 선도와제로 선정된 사업들이다.

경북도는 이번에 수상한 홍보동영상 외에도 정부3.0 마스코트 인형인 '삼이', '짬이', '영이'와 정부3.0 깃발을 자체 제작했다.

지난 10월에는 '실크로드경주 2015' 행사장에서 정부3.0 홍보관을 운영했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대구 동성로를 찾아가 현장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정부3.0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정부3.0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은 국민들이 직접 뽑아준 것이라 매우 의미가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쉽고 빠르고 편하게' 정부3.0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기자

## 내년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21곳 신규지정

### 지역특산물유통판매, 농가인력지원, 재활치료, 간병서비스 등 다양

경북도는 22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21개 기업을 신규지정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달 2일 2016년 제1차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총 33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21개 기업을 선정하게 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내년도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사업비(취약계층 50% 이상 고용조건으로 신규 고용 인원에 최저임금기준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홍보, 마케팅, R&D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경영컨설팅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북형 예비 사회적기업의 신청 자격은 법인·조합, 비영리단체, 상법상회사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1인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과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기업의 주된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

현이어야 한다.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 등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기업은 지역특산물 유통판매, 농가인력지원, 재활치료, 장애우를 고용한 카페운영, 간병서비스, 국공체 협프로그래밍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경북도는 2018년까지 사회적경제기업 800개(사회적기업 300, 마을기업 150, 협동조합 350)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편의 및 정보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여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 결과 12월 현재 도내 188개(예비 102, 인증 83) 사회적기업이 생산·판매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09개 기업 839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은 "베이비부머세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우수한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용 기자

## 도, 3개 의료원 경영 고공행진 예상

### 지난해 대비 경영수지 40억여원 개선 예상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이 수년간의 경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활성화의 기운이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3개 의료원의 당기손익은 95억 2300만원 적자였으나, 올해에는 55억7000만원 적자로 전년 대비 40억1600만원의 개선이 예상된다.

포항의료원은 지난해 34억9700만원 적자에서 19억7500만원이 개선돼 올해에는 15억 2200만원 적자가 예상된다.

김천의료원은 9억1100만원 적자에서 3억 2700만원이 개선돼 5억8400만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 적자 경영→흑자 경영  
경영난이 가장 심각했던 안동의료원도 51억 1500만원 적자에서 34억100만원적자로 17억 1400만원의 경영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33개 의료원 중 순수한 흑자경영은 1곳에 불과, 의료원당 평균 적자액은 연간 약 3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원의 전체적자 중 약 60%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 등 공익적 역할에 따른 소위 '건강한 적자'이고, 나머지 40%는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라고 분석하고 있다.

경북도의 3개 의료원이 이처럼 경영이 활성화 돼가고 있는 것은 올 한해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올 2월 김미경 김천의료원장이 새로 임명, 8월에는 변영우 포항의료원장의 재임용, 그리고 11월에는 신입 이윤식 안동의료원장이 임명돼 전 직원이 심기일전해 만성적인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 포항의료원  
포항의료원은 내과 의료진을 교체해 전자내

시경시스템을 보강, 정형외과를 강화, 인공관절 및 척추 수술 분야를 활성화했다.

치과는 우수한 의료진을 교체해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을 전문화시켜 치료 의료수입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해 포항의료원은 올해 의료수입이 전년도 131억원에서 25% 증가한 164억원에 이르고 당기손익도 전년 대비 56%인 20억원의 개선이 예상된다.

■ 김천의료원  
2014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김천의료원은 정형외과를 보강하고 치과를 개설하는 등 외래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올해 의료수입이 작년 보다 14억원이 늘어난 29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간호서비스를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특성화사업으로 증개축 중인 호스피스 병동 및 재활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흑자 경영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동의료원  
3개 의료원 중 경영적자가 가장 심각했던 안동의료원도 회생의 기운이 솟고 있다.

지난 7월 보건정책과장을 비상경영대책위원장으로 겸직 임명, 11월까지 비상경영체제로 운영하며 제2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결과 의료수입과 의료외수입이 지난해 보다 16억원이 증가해 185억여원에 이르러 약 17억원의 당기손익 개선효과가 전망된다.

안동의료원은 진료실적이 저조한 의료진 10명을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치매클리닉, 인공관절클리닉, 배내장클리닉 등 진료과별로 전문화된 특수클리닉을 개설해 수익을 증대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

하고 경영정상화 시까지 수당을 반납하고 의사·간호사를 제외한 신규 인력 충원을 중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의료원이 살아나고 있다.

■ 경북도 3개 의료원 모두 우수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에서 경북도 3개 의료원 모두 우수로 평가됐다.

이 평가는 전국의 지방의료원, 공립노인요양병원, 국립대병원 등 176곳에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것으로서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 안전망, 미충족 서비스 등 4개 부문으로 심사한 결과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6%에 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만큼 적은 숫자이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의 인프라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경북도내 3개 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거점치매센터, 금연지원센터, 어르신건강대학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새로운 100년 제2도약 예고  
김중수 복지건강국장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을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금년에 207회 7300여명을 진료, 운영을 시작한 2012년 이래 총 2만8000여명에게 적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병·의원 또는 보건소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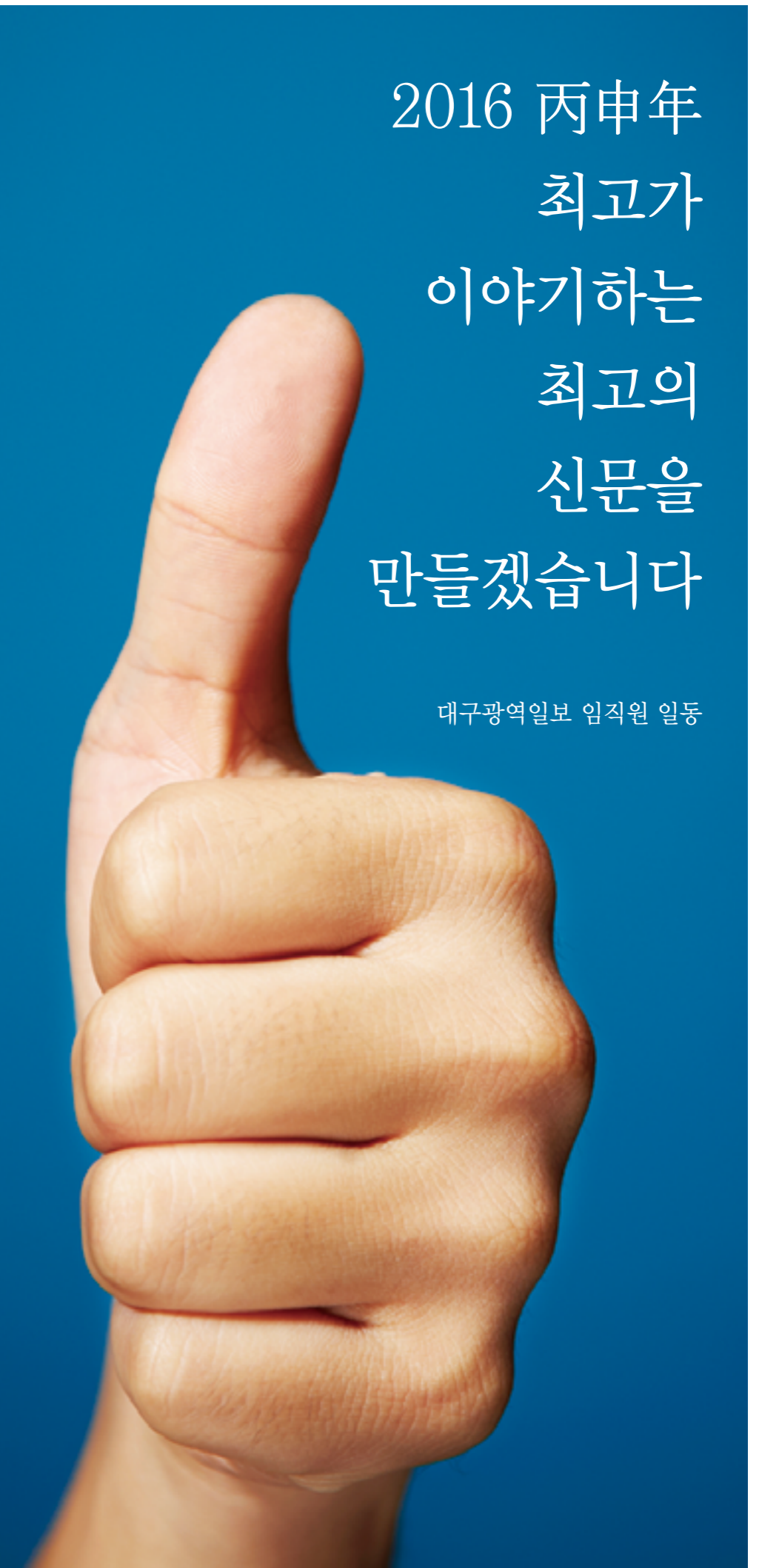
도는 내년 완화의료병동, 건강증진센터 신축, 장비 보강 등 3개 의료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126억원을 투자한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의료원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제2의 도약을 예고하고 있다.

김용구·최규목 기자

# 2016 丙申年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대구광역일보 임직원 일동



# 사회

광역시도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4

## 암컷대게 1만5000마리 불법유통 일당 구속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1만5000여 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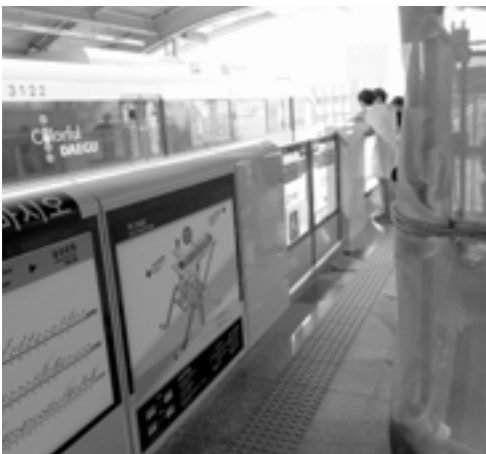
통·보관·소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박모(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 20일

과 22일 소지하고 있던 암컷대게 1만5000여 마리 중 8000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나머지 7000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창고 수족관 및 냉동 탐차에 보관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암컷대게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대게를 이들에게 판매한 사람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개 불법포획 및 유통책에 대해 지속적인 추적수사 활동으로 이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동 기자

# 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문제 특별감사 착수

하도급업체 선정과정 전반 걸쳐 중점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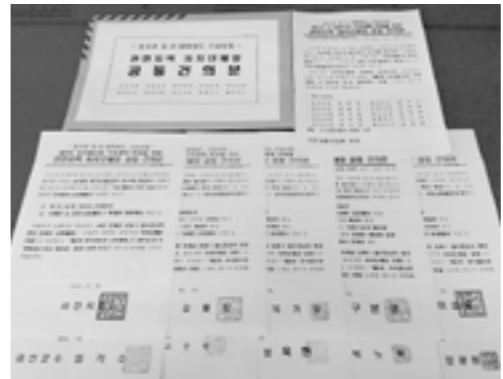
대구시는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스크린도어 제작·설치와 관련해 스크린도어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외압행사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무엇보다도 안전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사실관계 여부를 따

나 대구시가 지향하는 안전도시 건설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사는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 추진단계별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발주·계약·하도급업체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해 중점 감사한다. 이번 감사에는 그동안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에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감사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감사 진행상황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시키고 시공사가 의혹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비위가 나타날 경우에는 관련자를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전문가와 교수 등으로 가칭 ‘스크린도어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스크린도어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지우현 기자

# 영주·문경·봉화·울진 등 전국 10개 시장 군수 화났다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사업 포함시켜 달라 목소리 높여  
국토교통부에 동공 건의문 제출

국토의 중심부를 가로 지르고 있는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들이 들고 일어났다. 10곳 지자체는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울진군 △서산시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괴산군 등이다. 경북 4곳, 충남 4곳, 충북 2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해안과 동해안을 직접 연결하는 동·서 횡단축 노선망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건의문도 국토부에 제출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현재 남, 북쪽 위주 국가철도망에 중부권 동·서를 횡단하는 내륙 철도망 건설로 네트워크를 완성함으로써 원활한 수송체계 확보와 물류비 절감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 동·서, 남·북 국토의 균형개발 △서해안 신 산업벨트와 낙후된 경북북부지역과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 △동·서간 신규 개발축 형성 등 내륙산간지역 산업발전 유도 △자연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소백산 유교문화권 활성화 △충남도청·충북도청·경북도청 소재지를 연계하는 행정축 완성 등 경제성 B/C 만으로는 따질 수 없는 파급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이미 경상도와 충남도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한 사업이다. 경북도에서 신청한 점촌-울진 구간, 충남도에서 신청한 서산 대산항-삼교 구간과 아산-점촌 구간으로 총연장 340km, 약 8조5000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영주시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선(도담-영진)복선전철과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을 연계한 철도 수송체계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가지를 통과하는 영동선 이설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현안문제를 풀기 위해 경북선 점촌-영주, 영동선 영주-분천구간 등 총 153.3km 구간을 경북도와 협의 후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장옥현 영주시장은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지자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장 시장은 “그동안 철도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300여 만명의 중부권 내륙산간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선통과지역 10곳의 시장·군수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전력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장 시장은 “노선 통과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합심해서 중부권 내륙지역의 발전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모든 힘을 모으는대 앞장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와 점촌-울진간 단선전철 사업은 애초 제1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경제성(B/C)이 없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외된 사업이다. 하지만 철도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 등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중요한 국가사업임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제외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건의문 제출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 건설사업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천명했다. 전상기 기자

## “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된다”

### 불필요한 규제 개선 일환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최종절차인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최종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간 대구의 도심부(중구·북구 일부지역)는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고도지구 높이규정 9.9m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했다. 또한 토지이용 고도화 등 당초의 지정 취지와는 달리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그간 시민들의 불편 및 규제로 작용하던 도심 최저고도지구(9.9m)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계부서와의 협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을 마련했으며, 9월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11월 대구시 의회 의견청취, 12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결정절차를 마치고 30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함으로써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축물의 개선에 대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 달성군 ‘물망초 톡톡 시범마을’ 현판식 가져

달성군통합정신·치매센터 생명사랑 치매예방 시범마을운영

달성군통합정신·치매센터는 이달 생명사랑 및 치매예방을 위한 ‘물망초 톡톡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현판식을 개최, 본격적인 시범마을 운영에 들어갔다. ‘물망초 톡톡 마을’의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로 치매예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환자에 대한 애트함을 상징한다. 김영식 기자

‘톡톡’은 영어의 ‘talk talk’의 의미로 마을주민들간의 대화를 통해 자살예방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물망초 톡톡 마을’은 어르신들의 치매 및 우울예방을 위한 인지 재활프로그램과 노래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독거어르신들의 안부 서비스강화와 정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 경부고속도로 횡단하는 대구선 대림고가 거더교 가설

경부고속도로 대구 숙천동 통과구간 3차레 교통 통제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본부장 권영철)는 30일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건설구간 중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대림고가 강박스 거더교를 가설하기 위해 총 3차레에 걸쳐 인근 고속도로의 교통을 통제한다. 이번에 거처되는 교량은 총연장 1848m인

대림고가 중 대구시 동구 숙천동 경부고속도로 통과구간에 위치하며, 기존 대구선 횡단 구조물과 동일한 강박스 거더교(Steel Box-girder Bridge)로 제작됐다. 철도공단은 크레인(500톤) 2대를 이용해 현장에서 강박스 거더를 조립하는 대블럭 가설 공법을 적용하며, 가설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경찰의 협조를 얻어 총 3차레(12월 30일 오전 9시40분, 11시30분, 오후 3시 10분)에 걸쳐 각 10분씩 고속도로를 전면 차단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며 “공단은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시공과 품질관리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우현 기자

## 외국인, 내년부터 사후면세점 20만원 미만 구입시 면세

질병관리본부 차관급 조직 격상 긴급상황센터 설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단 개편 공공본부 의무 기능 강화  
학원이나 체육시설도 통근·통학 목적 전세버스 운행 가능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세액 상당액을 현장에서 즉시 돌려 받는다. 단, 한 차례 한국 방문

기간에 총 100만원의 범위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사후면세점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건을 산 뒤 출국하기 전 공항에서 환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질병관리본부를 내년 1월부터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장급이던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아 이끄는 긴급상황센터가 설치된다. 긴급상황센터에는 위기분석국제협력과가 신설된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진단관리과도 신설된다. 아울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소동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위기소통담당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던 한시 조직인 한국형항공기개발사업단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으로 개편하고 차세대잠수함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또한 공공본부의 보건·의료 등 의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검토총장 밑에 특별검토부도 의무실장을 뒤 공공의 의무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공공본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의 규격 등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증이나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회사나 학교,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였던 이날 법률공포안 5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 영남대병원 안과 이상범 교수 한국외안부학회 회장으로 선출

29일 영남대병원은 이 병원 안과 이상범 교수가 지난 1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개최된 한국외안부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임 이상범(사진·안과 교수)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임기 2년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외안부학회는 1990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1000여 명의 회원을 둔 안과의 주요학회다. 학회는 각막, 결막을 포함한 외안부 질환의



기초임상연구, 진료 및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학술단체로 외안부 분야의 학술 회의와 학술정보지(아이피트) 발간을 관장한다. 한편 이상범 교수는 유관학술단체인 한국각막질환연구회 회장을 맡아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연구회 활동을 수행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

광역시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5

중구 남구  
동구 수성  
북구 서구  
달서 달성



류한국 서구청장은 30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식'에 참석한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30일 구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5년 하반기 정년·명예 퇴임식'에 참석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에 참석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30일 신매동 '고산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3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인사신고'에 참석한다.

## 서구청, 사이버침해 대응부분 '우수기관'

서구청은 29일 대구시 주관으로 실시한 '2015년도 사이버침해대응 부문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구청은 이번 평가서 사이버침해대응에 대해 대구시와의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앙간 연계 인프라를 활용해 공동대응했으며, 주요 정보시스템과 행정망으로 비정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킹·악성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중요한 행정정보와 시민들의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각종 업무처리 수행에 보안구정을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시,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명칭 제·개정을 신청한 공공용물에 대해 '2015공공용물 제·개정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7개소의 명칭을 제·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공공용물 명칭 개정 결과, 도시철도 1호선 '성당못역'은 '성당못(관문시장)'으로 표기했다.

도시철도 1호선 '성당못' 역명은 1997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당시부터 제정해 시행됐으나, 이후 지속적인 개성요구 민원이 제기돼 이번 공공용물 제·개정 심의회에서 전통신장 활성화 차원에서 '성당못(관문시장)'으로 역명을 표기하기로 했다.

또 수성구 범어천 북계도로와 달구벌대로가 만나는 지점을 '범어천네거리'로, 두산교-과동IC를 연결하는 교량은 '신천대로'로 제정했다. 동구 불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교량은 '불로천교'로 신규로 제정했다. 아울러 북구 고성네거리는 '북구청네거리'로, 달성군 유가면 산성사거리와 산성지하차도는 각 '쌍계오거리'와 '쌍계지하차도'로 개정했다.

지우현 기자

## 북구청,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연말 만든다

북구청은 29일 바르게살기운동대구북구협의회에서 연말연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8일 북구청 네거리에서 음주운전예방 교통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식과 음주가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구바르게살기 회원 50여명이 참가해 출근길 주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렸다.

한편 안전운전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평가 전국 1위

## 사업수행 체계·운영 등 5개 영역, 38개 지표 평가 실시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5년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17개 광역자치체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자치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심의·조정 등 공정하게 실시했다.

대구시는 홀몸노인 보호계획과 지원, 사업수행 체계 및 운영, 사업성과 및 서비스의 질, 홀몸노인 사랑잇기사업 및 전산활용, 사업평가 및 업무협력 등 5개 영역 38개 평가지표에 89.29점으로 타 시·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244개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평가에서도 대구에 있는 8개 수행기관 중에 상위 20%내에 6개 수행기관이 선정됐다.

대구시는 이번 성과를 노인돌봄 민간수행기관과 협업을 기반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실

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필요 없는 홀몸노인 중 안전 확인 등이 필요한 9400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8개 구·군마다 수행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359명은 주 2회 전화, 주 1회 방문해 홀몸노인의 안전확인, 생활교육, 현황조사, 서비스 연계 등을 조사한다. 이런 조사내용을 17명의 서비스관리자가 총괄해 홀몸노인의 정보관리, 서비스 연계 및 조정해 홀몸노인의 사고예방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시비 46억원을 확보해 8개 구·군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교류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와 빈틈없는 촘촘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업해 노인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전국 1위의 영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복지기관과 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모은 결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견고하게 구축해 노후가 외롭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달성군 "마을 소통과 화합의 쉼터로 오세요"

### 하빈면 현내1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달성군은 28일 하빈면 현내1리 경로당 앞에서 김문오 군수를 비롯해 이종진 국회의원, 군의장, 군노인회장,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빈면 현내1리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내1리 경로당은 1990년에 건축돼 협소하고 노후해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공사비 5억원을 들여(달성군 1억2000만원 지원) 연면적 445.48㎡, 지상2층 건물로 지난해 8월 공사를 착공해 지난 5월 경로당을 신축했으나, 진입로 확장 및 마을공영주차장

완공이 늦어져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경로당 준공을 축하하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이자 편안한 쉼터 및 공동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주민 화합과 정보 교류의 장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달성군은 현재 282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률 제고와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함께, 건강기구와 생활용품 등을 지원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2016년 달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합니다

달성군은 지난 24일 군청상황실에서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달성군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6년도 달성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 마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달성장학재단은 올해 하반기 이사회를 통해 내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을 논의했다.

본격적인 장학금 신청·접수기간은 2월 중순부터 3월 사이에 실시된다. 내년도 장학생 선발 인원은 106명, 장학금은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사회 시작 전, 대구달성산림조합은 달성군청을 방문해 5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2013년 100만원의 시작으로 지난해 200만원, 올해는 500만원 등 3년 연속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지역인재 육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문오 이사장(달성군수)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통해 달성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고 높은 도덕성과 인성으로 우리사회의 큰 그릇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2000년 달성장학재단을 설립, 80억6500여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올해까지 2315명에게 25억9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내년에는 5억원의 기금 출연할 예정이고 있어, 교육을 통한 지역 청소년들의 경쟁력 향상으로, 달성의 미래를 열어가는 꿈을 착실히 실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영식 기자

## 수성구-고산서원서당유림회 "고산서원 복원에 주력한다"

수성구·고산서원서당유림회는 29일 고산서원 복원과 정비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수성구와 유림회는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정신문화 보급에 기여하기 위해 고산서원 복원·정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유림회는 고산서원 복원·정비에 필요한 1만8296㎡(수성구 성동 산 22-3)의 토지를 수성구에 기부채납했다.

수성구는 고산서원 복원·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산서원은 명종15년(1560년) 경산현령 윤희립이 서재를 창건하고 숙종16년(1690년) 고산서원을 건립,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된 후 현재까지 미복원 상태로 남아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서재의 이름을 '고산'으로 지으면서 고산지역의 명칭이 유래했고, 고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과 당시 대구부사 우복 정경세 선생이 강력한 유서 깊은 교육기관이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끝까지 항쟁한 수많은 의병을 배출했다.

수성구는 유서깊은 역사문화자원인 고산서원을 복원해 지역 청소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주변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번 MOU를 통해 교육도시 수성구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인 고산서원의 복원정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단순한 문화재 복원이 아닌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활용한 체험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남구청,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대구 '최고'

## 대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남구청이 2015년 대구시 주민자치센터 운

영 구·군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1년 처음 시행된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는 대구시 8개 구·군과 16개 주민자치센터(구·군별 2개)를 대상으로,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부문' 서면평가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문' 현장 평가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이번 평가서 남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견학대회 및 연수대회 개최 △마을 가꾸기 사업 시행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 선정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명2동과 대명4동 등 각 동의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동아리 공연 △음악회와 마을축제 등 다양한 주민자치사업 시행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체험사례 발표 △남구청 문화갤러리 작품 전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마을문제 해결 노력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들의 이용편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지우현 기자

## "취득세 신고 후 계약해제했다면 구청에 신고하세요"

### 수성구, 주민의 불이익 방지 위해 안내문 배부 등 홍보 강화 나서

수성구는 최근 취득세 신고 후 부득이한 사정에 계약해제가 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수성구에 따르면 계약해제에 대한 재신고와 관련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성구는 주민들의 불요불급한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1월 부동산거래신고 창구와 관내 205개소 범무사무소에 공문과 함께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가 사인간에 이뤄지는 만큼 세무부서에서 사전에 확인해 안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인중개사 등 거래 단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문가를 통한

홍보가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취득세 신고후 유의사항' 안내문 4000매를 추가로 제작했다.

아울러 협조요청 공문과 함께 관내 세무·회계사협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해 의뢰인에게 계약해제 할 경우 반드시 구청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및 홍보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공정증서 작성 등에 따른 납세자들의 추가비용과 시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소화된 '계약해제신고서'를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신고과정에 주민들의 공증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단순하지만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계약해제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춰 기한내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수성구민서신수성

#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6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이강덕 포항시장은 30일 '2015 포항과매기 겨울 바다축제 & 2016 영일대 해맞이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30일 오후 2시 경주역 광장에서 열리는 '경주 쌀 소비 촉진 캠페인' 행사에 참석한다.



이희진 울릉군수는 30일 오전 군청회의실에서 열리는 실과소 담당 주무관회의를 주재한다.

## 울릉군, 2015년 하반기 정년·명예 퇴직 행사



울릉군은 2015년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직식을 28일 오전 군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퇴직식은 최수일 군수를 비롯한 동료, 후배 공무원과 친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인사발령통지서 전달, 공로패 수여 등으로 소란하지 않고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이진철 사무관, 이기복 사무관, 최문영 서면 부면장이 36년에 가까운 기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년퇴직했으며, 이현영 주무관이 독도관리사무소 안전지도계 소속 공무원으로 22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 했다.

최수일 군수는 "이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울릉군 발전의 토대가 되고 군민의 행복에 작지만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도 울릉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운환 기자

**강구일번지 공인중개사** 매물접수환영  
**영덕군, 강구면, 영해면 등**  
 동해안 모든 지역 **땅문의**하세요  
 최선을 다해 선별해 찾아 드립니다.  
 TEL. 054)734-8989 / 010-6767-9997  
 대표 황성학

## 경주시립도서관 '2016년 이동도서관' 운영

경주시립도서관은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원활한 독서 문화 풍토를 형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인 '2016년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

이동도서관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유아 부모 및 노인인구가 많은 곳, 대단지 아파트 및 이용요구가 있는 지역, 원거리에 도서관이 없는 곳 위주로 선정해 내년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약 1년간 불국동 국제그린빌 외 12개 지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방법은 1주 간격으로 동일지역, 동일시간에 순회하며 도서관 도서회원에 가입하면 1회 5권의 도서를 14일간 대출 받을 수 있다. 경주시립도서관 누리집(www.kjlib.or.kr), 전화(054-779-8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찬 기자



# 독도를 찾는 관람객 지난해 비 27% 증가



### 광복 70주년 영향이 큰 듯

독도방문이 2005년 3월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전면적으로 개방된 이후 독도를 찾는 일반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개방이후 지금까지 10년간 156만명이 독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세월호 사건의 영향으로 독도를 찾은 관람객이 다소 주춤했으나 올해들어 메르스라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를 찾는 관람객이 17만8745명으로 지난해 13만9892명보다 27% 증가했다.

이는 울릉도 방문 관광객수 증가를 8% 증가보다 앞선 것으로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증편에도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4척에서 5척으로 1척이 늘어남으로써 독도를 찾는 관람객의 여객선 이용이 용이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독도 여객선 운항을 살펴보면 지난 3월 7일 독도 첫 출항을 시작으로 11월 5일까지 172일 506회 운항한 가운데 82.6%인 142일 381회 입도했으며, 나머지 30일 125회는 기상 악화 등으로 독도에 접안을 하지 못하고 선회함으로써 모처럼 찾은 관람객의 아쉬움을 달렸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람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전확보 및 편의제공으로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안심하고 내년에도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환 기자

## 겨울방학 대학생 일자리사업 추진

### 영덕군, 교통안전시설물조사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 교사

영덕군은 2016년 겨울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사회경험을 통한 자립정신을 심어주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107명의 희망자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군은 공정한 선발을 위해 우선선발 대상자(수급자·한부모가족자녀)를 제외한 인원 전부를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선발, 최종 20명의 선발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군은 선발자들을 대상으로 28일 사전교육



을 통해 근무부서 및 근무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선발자들은 오는 1월 4일부터 2개월간 교통안전시설물조사요원과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학습지도교사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불법쓰레기 계도요원으로도 근무할 예정이다. 김승건 기자

## 포항시, 2015년 한 해 '최고의 빛나는 성과' 거둬

기관표창 54건 수상, 공모사업 45건 191억원의 국·도비 예산 지원 등 사상 최대 실적 올려

포항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 등에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시정운영에 대한 전국규모 기관평가 분야에서 지난 5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기관' 선정, '지자체 일자리창출분야' 특별상 수상, '지자체 일자리창출분야' 특별상 수상, '지자체 일자리창출분야' 특별상 수상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한 '2015년 경영대상 공공부문 '브랜드 경영대상' △행정자치부·한국경제신문 공동주최 '제4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자치부·한국생산성본부 공동주최 '제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매일경제신문 주관 '2015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대상' 우수상 △'K-ICT 3D프린팅 컨퍼런스 산업발전대상'(미래창조과학부) △'전국우수시작발람회 전통시장 활성화분야 국무총리상'(중소기업청)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최우수상'(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지자체 e-마케팅 페어종합대상'(행정자치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3개의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정부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수도공기업이 경북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포항시는 경북도 주관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경북투자유치대상' 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분야 최우수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시군평가 최우수상' △'메르스 확산방지 유공기관' △'식품박람회 최우수상' △'자원봉사단 운영 최우수상' △'세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상' 등 총 27개의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다.

또 외부 민간단체의 평가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외국인투자기업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공약이행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4곳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공모사업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한 해로 평가된다.

포항시는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한 제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연초부터 공모사업에 집중한 결과 포항TP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경북SW 융합클러스터사업' 공모에서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을 비롯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상대로 젊음의 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12억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8억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선정사업' 5억원 △'새마을 공동체 정원가꾸기 사업' 5억원 등 총 45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91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지원 받았다. 권혁동 기자

## 2015년 영덕군 빛나는 성과와 함께하는 한 해 보내

### 중앙부처, 경북도 등 33건 수상, 8억7830만원 확보

영덕군은 올해 민선 6기 군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다방면에 걸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한 결과 중앙부처, 경북도, 민간 부분에서 33개의 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및 상사업비로 8억7830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규제개혁, 건축, 복지, 문화관광, 일자리,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른 수상을 보이며 군민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고 군정수행 부분에서 모두 활발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국민안전처로부터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평가 우수기관 수상, 보건복지부로부터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영덕 블루로드) 등 총 9건의 중앙평가 수상을 거뒀다.

또한 경북도로부터 시·군 규제개혁 추진



실적 최우수, 계약원가심사운영 최우수, 산불방지 최우수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수, 상반기 시·군 일자리창출 우수상 등 13개의 수상을 일괄 받았으며, 이와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주문화예술회관 최우수 공연장상 수상 등 11개의 민간부분 수상도 기록했다.

영덕군은 영덕대표특산물인 '영덕대개'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영덕대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결과 특산물 분야에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코리아 탑 브랜드 대상,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영덕대개의 브랜드 파워를 전국에 자랑했다. 김승건 기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바다 **놀러**  
**KTX** 타고 포항으로 오세요.  
 포항 - 서울  
 pohang 포항시

#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7

## 바르게살기운동 청도군대회 개최

바르게살기운동 청도군협의회(회장 차승렬)는 29일 오전 10시 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이승을 청도군수, 예규대 군의회 의장 등 관내 기관단체장, 바르게살기회원 등 3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바르게살기운동 청도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 한 해 동안 바르게살기운동의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새해 활동 결의를 다

지는 대회로, 식전 강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의식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인재육성장학금 200만 원을 청도군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 더욱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강용규 기자



## 경산 영천 청도 칠곡 고령 성주



김영석 영천시장은 3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드경제 주관으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 고령군, 드림스타트 부모교육·화덕피자만들기

고령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2일 문화누리관 3층 자활교육실에서 사레관리아동 30명과 보호자 3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교실'은 연말을 맞아 드림스타트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모교육에서는 경북과학대 신성철 교수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아동에게 필요한 드림스타트 필수교육인 아동권리, 아동학대, 성폭력, 인터넷중독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어린이 체험업체인 '열린교육'에서 시행한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 피자만들기' 프로그램에서는 연말을 맞아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피자를 부모와 직접 요리함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

김양수 기자

### 여성친화도시로 칠곡군 지정받아

칠곡군은 지난 2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내년 1월 중순 여가부와 협약식을 갖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가부가 2009년부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 중 57개가 선정됐다. 칠곡군은 경북도 군부로는 최초로 지정된 것이다.

또한 안심마을만들기사업과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안전한 군부 3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위한 맞춤형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은진 기자

# 경산시, 수출목표 15억달러 달성 기대

## 세계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하락 등 대외 여건 악화 불구 수출호조 12월 15억달러 무난

경산시는 세계경기 부진,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에 불구하고 11월 수출실적이 14억7000만달러를 달성해 전년도 13억9000만달러 대비 0.8% 증가해 연말까지 15억달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력업종인 전기기기 및 기계부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국내 수출경기는 전국평균 7.4% 감소했고 경상북도 14.5% 감소, 경북의 대표적인 수출지역인 구미와 포항도 큰폭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국제유가 하락세 진정 등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세계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FTA 발효로 수출전망이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중 FTA 발효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만38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며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제한적 수준으로 결정된 한·중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공략 및 각 업종의 성격에 맞는 특성화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경산시는 2016년에도 다양한 수출지원 시책인 무역투자사절단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FTA 컨설팅 지원, 해외지사사업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양·와촌 일원에 377만9000평방미터(114만평) 규모의 국제사업인 경산지식산업지구 조성, 진량지역에 250만4000평방미터(75만평) 규모의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압량지역에 30만평방미터(9만평) 규모의 국제사업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차질없이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 유망기업들을 투자유치를 통해 영남내륙의 중추 거점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산시가 인구 30만 자족도시의 성장동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신경윤 기자



## 영천시 지역 어르신과 따뜻한 동행

### 떡국 한그릇으로 소통 나눠

영천시 기획감사실에서는 29일 '연말 사랑나눔 함께 하기' 행사의 일환으로 무료급식소인 나눔의 집에서 어르신들께 떡국을 대접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어르신, 나눔의 집 봉사자, 후원자, 영천시 기획감사실 직원 등 150여명이 함께 했으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직접 떡국을 나르며 어르신께 위로의 말을 건넨 김병삼 부시장은 "연말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평소에도 주변 이웃들의 삶의 현장

을 찾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년째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우현옥 회장은 "시정 추진에 바쁜 와중에도 잊지 않고 함께 걱정하고 도움을 주니 어르신들께는 삶의 활력소가 되고, 우리 봉사자에게도 큰 힘이 된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영천시 기획감사실에서는 의례적인 송년회보다 이웃과 함께 사랑나눔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4일에도 자매결연마을인 신녕면 신덕2리 경로당을 방문, 생필품을 전달하고 안부 인사를 했다.

김일만 기자

## 고품질 꿀벌, 한·베트남 FTA 극복한다

### 칠곡군, 꿀벌나라 테마공원 연계 양봉 6차산업 추진

칠곡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칠곡양봉연구회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완전식품인 벌집꿀의 성분과 그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벌집꿀을 활용한 요리들이 전시되고 참가자들은 직접 영양간식인 카나페를 만들면서 치유농업이자 웰빙식품인 양봉의 가치를 경험했다.

전국 유일의 양봉특구인 칠곡군은 올해 꿀벌나라 테마공원 기공식을 갖는 등 양봉의 6차 산업을 통해 지역 세소득 아이টে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강의는 양봉전문가인 대한정제봉독전지현 대표가 맡아 생태계에 있어 꿀벌의 중요성과 양봉농업의 경제적 이용가치 등을 설명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꿀벌은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의 화분매개체를 통한 수분을 71% 담당한다. 그 가치는 6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16.2%를 차지한다.

또한 꿀벌의 전체 생태계 보전효과는 70조원으로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세계 꿀벌은 373조원의 노동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꿀시장의 개방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꿀벌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봉의 6차산업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칠곡군은 꿀 생산성 향상과 제조·가공을 통한 양봉산물 활용, 체험관광 상품 개발 등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한 양봉 6차 산업을 추



진 중이다.

밀원수집 조성을 위한 자생식물 분포 실태조사, 자연친화적인 벌꿀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양봉인력 양성, 봉독을 활용한 봉독미스트, 염증완화용 마스크팩, 비염치료제, 봉독안약 개발, 마카롱, 허니빵, 벌집꿀요리 등 다양한 먹거리, 미용제품, 의약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밀랍을 활용한 립밤, 밀랍초를 상품화하는 등 양봉산물의 활용분야를 확대 중이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겨울철 피부미용을 위한 로열젤리스킨DIY 개발하기도 했다.

교육을 수강한 이수성 양봉연구회장은 "몇회에 걸친 양봉산물 관련 교육으로 한·베트남 FTA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지현 강사는 "양봉산업의 기초가 다져진 칠곡군에서 고품질의 벌꿀을 인정하는 등급제 도입 등 소비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양봉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꿀벌나라 테마공원과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양봉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지역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진 기자

## 경산시,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 운영위원회 개최

###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 보호위한 만전의 대책 마련

경산시는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4일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경산시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경산시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 운영위원회는 경산시, 경산시의회, 경산경찰서, 경산교육지원청, 로댕성폭력상담소,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경북사론의 집, 경산시보건소, 학부모대표 등 아동·여성폭력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2015년 아동·여성보호 관련 정책 실적과 2016년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아동·여성보호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경산시 운영위원회 주요 토의 안건으로 아동·여성보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내년

도 폭력추방 주간 행사 추진방안 및 인권연대 참여기관 간 아동·여성 안전 관련 사업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탈출소녀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별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유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정보공유로 아동·여성 보호 및 사전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피해 사례 발생 시 긴급히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 실무사례회의를 구성 대처하기로 했다.

신경윤 기자



Yeong Cheon

飛

항공부품산업

# 영천, 시너지를 채우다

영천이 세계를 향해 비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영천의 트레이드마크 중심에는 혁신적인 비전과 지지치 않는 열정, 예매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맞는 도시 영천의 새로운 내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馬

영천경마공원

1,172 (KRW 65,000,000)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업 유치

영천(인)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영천(인)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영천(인)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영천(인)을 위한 인재육성사업

렛츠런파크 영천

렛츠런파크 영천

# 경북

광역일보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8

구미 김천  
문경 상주  
군위 의성



남유진 구미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 하반기 퇴직자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30일 조문국박물관에서 열리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명만 군위군수는 30일 군수실에서 삼국유사 목판사업 관련 대구 MBC방송과의 인터뷰를 실시한다.

## 더 프라미스 대구경북본부 후원의 밤... 감사마당 펼쳐

구미시는 지난 28일 오후 금오공대 청운관에서 국제개발구호 '더 프라미스' 대구경북본부 '송년·후원의 밤' 행사가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한해 동안 고생한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를 위해 마련됐으며 긴급구호사업의 소개, 그간 사업추진에 공이 많은 회원에게 감사패 전달, 더 프라미스 대구경북본부 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 만찬, 저개발 국가 아동들을 위한 '건강 반바지 꾸미기' 봉사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더 프라미스 이사장(범등 스님)은 "미래의 꿈을 포기하는 이웃과 아이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역사회, 국가를 넘어 부처님의 자비를 아시아 전역에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더 프라미스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종교와 문화, 인종에 구분 없이 차별 없는 나눔 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더 프라미스의 세계적인 도약을 바란다"며 전했다.

이은진 기자



## 상주시, 새마을지도자대회 성황리에 개최

제2새마을운동 실천 다짐

상주시새마을회(회장 남정일)는 지난 28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정백 상주시장

과 남영숙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새마을남·녀지도자 등 6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상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더불어 살

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제2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져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식전행사인 새마을홍보물 상영을 시작으로 2015년 성과보고에 이어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한 69명에 대한 우수새마을지도자들이 수



상했으며, 또한 새마을운동 추진 읍면동종합평가에서 신흥동이 최우수 표창을 받아 5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오재영 기자

## 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 개최

노사정 대타협의 이행을 위한 공동실천협약식 체결

2015년도 김천시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정례회가 지난 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협의회 위원과 이를 보조하는 실무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회의는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김천시로부터 2015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201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후 현안사항 토의, 중앙 노사정 대타협 사항에 대한 공동실천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노사정 공동실천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도입, 정규직·비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경영계는 정년보장, 고용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천시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노동계와 경영계를 잇는 교두보 역할로써 모든 역할을 집중,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해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김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15일 중앙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타협안에 대한 이행과 이러한 훌륭한 양보의 대타협 정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함께 하고자 한국노총김천지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구미고

용노동지청, 김천시가 공동으로 협약식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노사민정 협의회 위원장인 박보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사민정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이어받아 전국에서 최고의 일자리와 행복도시 김천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최규목 기자

## 의성군, 2017년 농촌개발사업 국비확보 총력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예비계획(안) 보고회

의성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예비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중소 마을의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으로 의성군은 2017년 신규사업 사업

성 검토를 대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소, 창조적마을만들기 6개소 예비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회는 경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를 대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예비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고, 각 사업별 추진위원장의 사업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 대면평가를 대비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의성군은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개소(의성읍, 단밀

면) 및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4개소(단촌 목촌마을, 춘산 효선마을, 봉양 구미마을, 단북 칠성마을)가 선정돼 총 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은 1월중 사업신청을 완료하고 3-5월간 경북도·중앙 심사 후 사업을 선정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예비계획 및 평가대비를 철저히 준비해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성 기자

## 사과공선출하회, '의성진사과' 서울청과 첫 출하

의성거점APC에서 엄선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납품

의성군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구성된 의성군 사과공선출하회(EM작목반 대표 권혁기)는 의성군 공동브랜드인 '의성진'으로 거점APC에서 엄격한 선별을 거쳐 포장한 의성진사과 500박스를 지난 17일 가락시장내 (㈜서울청과)로 첫 출하를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의성거점APC에서 엄선한 의성진사과를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서울청과)로 출하를 시작, 지금까지 (㈜서울청과) 의성군 공동브랜드 '의성진사과'로 24톤 2400박스를 출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하 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9일 서울가락시장을 방문, (㈜서울청과) 임원진과 가락시장내 중도매인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성진사과'의 옛 명성을 되찾고 앞으로 의성에서 생산되는 사과, 자두, 복숭아 등 과실류를 꾸준히 서

울가락시장 내 (㈜서울청과)로 출하해 의성농산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약속했다.

박재성 기자



김천시, 시내버스 요금 내년부터 인상

김천시는 시내버스 요금이 내년(2016년) 1월 1일부터 일반버스 100원, 좌석버스 200원씩 각각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간 인건비, 물가인상 등 운송원가의 꾸준한 상승으로 버스업계에 누적된 운영적자와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1월 23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도 전역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금 조정(인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일반버스의 경우 성인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중·고생 900원에서 1000원, 초등학생 6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됐다.

좌석버스의 경우 성인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중·고생 1100원에서 1300원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 70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시계 외 운임은 시외버스 운임·요금(km/116.14원)이 적용된다.

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교통카드 할인제도 및 김천-구미-칠곡 광역환승제도는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

최규목 기자

**"경북농업의 얼굴"**  
**"경북의 중심"**  
**"부자농촌의 열쇠"**

백악기 시대 거대한 공동공원, 공동발자국화석지  
의상대사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얼이 서린 천년 고찰, 고운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고스라이 간직한 사촌마을  
숲속의 산소탱크, 금북옥산자연휴양림  
경북 3대 평야, 안계평야에서 나는 황토쌀  
믿고 먹는 브랜드, 마늘포코·마늘소

이 모든 것을 품에 안은 곳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의성군입니다.**  
www.usc.go.kr

**활력 넘치는  
희망의성**



# 경북

광역시도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9

## 봉화군, 교통약자 위한 배려 행정 펼치다

봉화군은 29일 봉화군청 군수실에서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위탁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박노옥 봉화군수와 김찬국 경북지체장애인협회 봉화군지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저상형 장애인 차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2급 장애인, 하지에 장애가 있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위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0km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고 10km 초과시 1km당 200원의 추가요금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전성기 기자

## 안동 영주 예천 봉화 청송 영양

# 경북의 새로운 중심 '명품 안동' 기반조성 박차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안동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완료

안동시는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등 높아지는 도시위상 변화에 대비한 도시공간구조 재정립과 경북 중심 도시로서의 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등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경북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완료, 경북도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해 목표연도 2025년, 계획인구 약 28만명으로 설정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불합리한 부분 재검토와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한 해제를 통해 2020년 7월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해 추진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도 2016년 상반기 주민공람을 목표로 정상대로 추진 중에 있다.

공원분야에서는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2014년부터 올해 9월에 걸쳐 모두 완료하고, 자투리 땅을 활용한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

야소공원 등 소공원 2개소와 어린이공원 2개소 등에 대한 공원 신규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로, 민간이 주축이 된 공간정책 최고 자문 및 정책제안기구인 '안동시 미래위원회'도 지난 11월 4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위원회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자문 및 정책제안, 도시계획 관련 중장기적 시정 발전방안 모색 등 안동시 정책결정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초대 위원으로는 서울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장을 지낸 권영걸 (주)한샘 최고 디자인 경영자를 비롯한 출향인사와 각계 전문가, 경북도 고위공무원 등 총 24명을 위촉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총 16회의 도시계획위원회와 2회의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임하면 천전리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옥정동 일원 한옥마을, 성곡동 개목나무, 풍천면 버스회차지, 도산면 호계서원, 옥아·운흥 소공원 등의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8건과 28건의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처리해 한정된 토지의 계획적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이바지했다.

권기인 도시디자인과장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웅도 경북의 새로운 중도시로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과업의 성공적 완료와 주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내실 있는 도시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규 기자



장옥현 영주시장은 2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경북북부권 유교문화 발전방안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현준 예천군수는 29일 예천군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획감사실장 퇴임식에 참석한다.



박노옥 봉화군수는 30일 오전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승진 및 전보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30일 영양군보건의사회에서 개최되는 '영양군-안동의료원간 MOU 체결식'에 참석한다.

## 영주시, 2015년 한 해 흘린 땀의 결실 맺다

영주시는 올해 중앙부처와 경북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총 56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알찬 성과를 거뒀다.

2015년 한 해 동안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를 시작으로 56개 부문에서 각종 상을 수상, 상사업비 30억6000만원과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시상 주체별로는 중앙부처 주관에서 영주 무섬마을이 '2015 한국관광의 별' 숙박 부문에 선정됐으며,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가꾸기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16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외부기관 주관으로는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주관하는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는 등 17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이외에도 경북도의 시군 민원행정 추진 평가에서 '대상', 저출산 극복사업 시군평가 '대상',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등 22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상을 수상했다.

장옥현 영주시장은 "11만 시민의 협조와 성원으로 영주시 공무원이 한 해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도입,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 "효도엽서 보내고 도로명주소도 배워요"

예천군, 관내 초등학교 대상 도로명주소 홍보

예천군은 상반기 5월 가정의 달 및 하반기 10월 할매·할배의 날을 기념해, 도로명주소와 함께하는 효도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해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알고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에 연말 관내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정확히 우리 집 및 할매·할배의 집 도로명주소를 기억하고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배부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읍내 초등학교 3개교(예천초, 동부초, 남부초) 학생들에게 도로명주소 스티커 1100여매를 배부해 평소 사용하는 지갑·필통 등에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집 도로명주소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스티커 4장중에 1장은 공란으로 비워두어 학생들이 직접 적은 할매·할배집 도로명주소를 할매·할배께 전달해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가 직접 적어서 준 스티커를 소중하고 의미있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원식 기자

## 예천군, 동절기 산업재해예방 위해 공사 중지 통보

동절기 기온강하 인한 피해 예상 사업 54건, 부실시공 방지 위해

예천군은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건설공사 중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 54건(본청 53건, 읍면 등 1건)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 및 산업재해예방, 품질관리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를 통보하고 해빙기까지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

기온강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사나 실내에서 실시되는 공사는 발주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사 중지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고 공사시공 시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한중콘크리트 시공 규정에 따라 충분한 보온

시설을 완비한 후 시공해 동결 피해 예방은 물론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로 인한 땅깍기·흙쌓기 비탈면 및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과 교통안내간판 설치, 큰길정비 등을 조치하고 현장과 비상 연락망을 재정비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및 순찰을 수시로 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황원식 기자

## 영양 재래시장-산촌문화누림터간 연계 도로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영양군에서는 지난 28일 오전11시 영양읍 사무소에서 영양 재래시장-산촌문화누림터간 연계도로사업(농협 군치부-영양교육지원청간 도로확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영양군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영양 중앙로에 도로확장 및 양방향 인도를 설치(L=1.3km, 폭15m)하는 사업으로 재래시장과 인근 관광자원들을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24억원(국비1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권영택 영양군수를 비롯한 김시흥 영양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남천희 경상북도의회의원, 영양선거관리위원회 및 영양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노선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이 영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번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강조하며 "국토교통부 평가를 무사히 마쳐 본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부분이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보상협의 등 근 행정에 적극 협조, 영양군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길 함께 바랐다.

이창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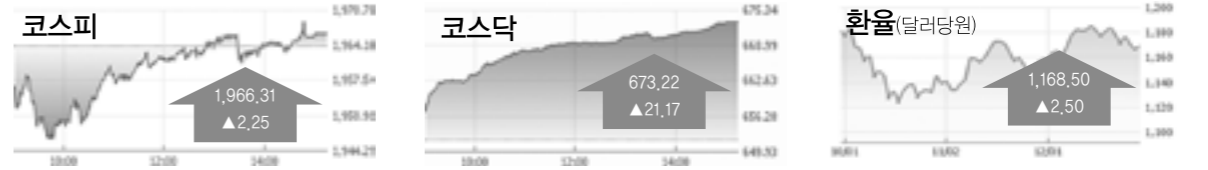


아이 영주사과

36.5 수백어김

# 영주사과는 생명의 물입니다

영주사과는 유니세프 와 함께 "해외오지마을 우물파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규제완화 덕에 기존주택거래·신규분양 역대 최고 기록

## 2015 건설부동산 결산, 전국 주택 거래량 2006년 이후 10년새 최대치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대란'을 겪었다. 기존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한편, 신규 분양시장에도 청약자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극심한 전세난, 저금리 기조 등 시장 상황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내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정부의 정책기조까지 맞아떨어진 결과다.

- 주택거래량 110만건 돌파... 2006년 이후 최대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누적 주택거래량은 110만582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늘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6년의 108만2453건이었으나 올해는 11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넘어선 것이다. 아파트 누적거래량도 75만2612가구로 2006년 72만1283건보다 많다.

주택 거래량이 이처럼 늘어난 이유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첫 손에 꼽힌다. 정부는 지

난해 7월 2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며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지역에 상관 없이 7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까지 완화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기조가 자리잡은 이후 주택거래량이 폭증한 것이다.

전세난도 영향을 미쳤다.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월세를 부담하는 대신 빚을 내서 내집을 마련하려는 매매전환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이때문에 올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만건 수준을 유지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전세난"이라며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완화를 기조로 움직여왔는데 시장이 반응하지 않다가 올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전세 수요자들이 지치다 못해 매매 수요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밀어내기 분양에 신규 공급도 폭증

기존 주택거래 시장 뿐만 아니라 신규 아파트 공급도 폭증했다. 호황기를 틈타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탓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총 51만7067가구다. 부동산114가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1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17만3302가구가 분양됐다. 2011년과 2012년은 각각 26만가구가 시장에 풀렸고 2013년에는 28만3513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에는 33만854가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격의 경기도'가 돋보였다. 경기도는 올 한해 20만1685가구가 선을 보였다. 2010년 전국 분양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경기도에 풀린 것이다. 울산과 제주도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아파트가 시장에 나왔다.

공공분양 물량을 빼면 상승세가 더 두드러진다. 올 한 해 민간분양 물량은 42만9188가구다. 당초 예상치(30만8337가구)와 비교하면 40% 가량 많다. 민간분양 물량은 2010년에는 9만5899가구에 그쳤고 2011~2013년에는 연간 19만여 가구 수준이었다. 지난해에는 26만5959가구가 새로 분양됐다.

이처럼 아파트 공급이 폭증한 것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는 민

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보유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무기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은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규제완화와 저금리 등 시장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급물량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 청약시장, 훈풍 넘어 광풍으로... 지방시장 특히 강세

주택청약시장도 뜨거웠다.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방 광역시의 청약시장은 광풍이 불었다. 올해 부산광역시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82.81대 1을 기록했다. 대구는 56.42대 1, 울산은 46.03대 1이다. 서울도 지난해 5.38대 1에서 올해는 3배 가까이 늘어난 14.5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시장의 강세는 청약 경쟁률 상위 단지를 살펴보면 두드러진다. 평균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9개 단지가 지방에서 분양된 곳이었다. 현대건설이 대구 수성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622.1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정원 용지 다담 레이크파크

422.45대 1 △부산 광안 다담 379.07대 1 △해운대 자이 2차 363.81대 1 순이었다.

청약시장의 뜨거운 열기 뒤에도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입하고 나서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1순위 가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523만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890만명 수준까지 늘었다. 지방의 경우 6개월이면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돼 투지수요가 몰렸다는 예기다.

하지만 정부가 여신심사 강화 등 대출규제카드를 꺼내든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내년도에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진 책임연구원은 "내년도에 약 32만 가구의 분양 물량이 계획되었지만 실제 분양물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보인다"며 "대출규제 강화·금리 인상·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건설사가 공격적으로 분양에 나서기에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 전통시장 활성화정책 '주먹구구'

대구시와 구·군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법 평가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지원 과도 편중 지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구·군이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지원도 과도하게 편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0월 23일 대구시와 대구지역 8개 구·군에 특별법에 따른 활성화 지원 계획서,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서, 시장과 상점가 실태조사결과, 상권활성화사업,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내역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특별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청의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관한 사

항과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9일 대구시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지원사업의 평가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대구시가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고도 지원계획과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해당 정보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대구지역 8개 구·군은 동구가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계획을 공개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정보 부존재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원사업 대상의 편중도 문제다. 특별법상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등을 통해 다양하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중 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단 2건, 금액 기준으로는 0.5%에 불과할 정도로 전통시장에 치중돼 있다. 지우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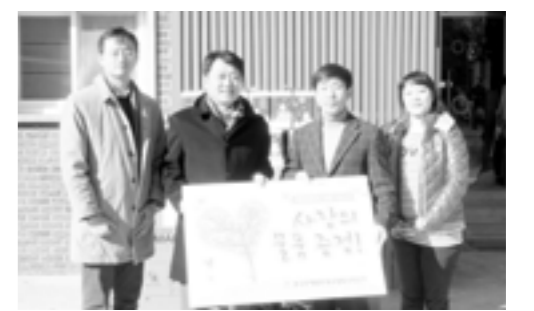
## 한국무역협회 대경본부 대구 SOS어린이마을 방문 사랑의 위문품 전달하다

28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대구 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세탁기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와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규식 본부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이웃

을 보살피는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지역 롯데백, 새해 첫 정기 세일

코트·패딩 할인율 최대 40%로 판매 내수 경기 가능하는 척도 될 듯

롯데백화점 대구점, 상인점, 영플라자 대구점은 내년 1월 2-16일까지 총 16일간 첫 정기 세일을 시작한다.

이번 세일은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대구경제에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통해 소비심리 회복에 나선 대구지역 롯데백화점이 새해 벅두부터 정기세일을 통해 내수진작에 불을 지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때문에 업계에선 이번 세일이 향후 내수 경기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점 등에 따르면 이번 세일에서는 특히 코트나 패딩 점퍼 등의 할인율이 브랜드와 품목별로 최대 40%로 떨어질 예정이다.

엘니노 현상으로 유달리 따뜻한 올 겨울 날씨가 계속된 탓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겨울 아우터의 판매가 예년만 못하게 되면서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이다. 대구점은 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3층 행사장에서 에스칼리에와 벨리시앙, 실크로드, 최복호 등의 유명 여성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재킷과 패딩 점퍼를 각각 7만원과 10만원 균일가로 판매한다.

이밖에도 대구점은 소다, 탤디 등의 유명 구두 브랜드 제품을 20-30% 할인하고 실리트,

햄튼, 타이거 등의 주방기기 제품을 최대 40% 할인하며 메트로시티, 쿠론, 루이까포즈 등의 핸드백 제품을 10% 할인한다.

이와 함께 롯데 대구점과 상인점 식품매장에서는 실명절을 앞두고 청과, 건강식품 등 인기 선물 상품 120여 품목을 엄선해 최대 70%를 할인해서 판매하는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행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사전 예약판매 기간 동안 전통적인 명절 인기품목인 한우의 경우 10-15%, 굴비는 15-20%, 건과 및 곶감 20-25%, 와인 40-70%, 건강식품 20-70%를 할인 판매한다. 또한 GNC 뉴 액티브-씨(은가죽 건강세트1호)와 대상웰라이프 홍삼기력골드프리미엄을 각각 2만7000원과 3만6000원에 판매하고 KY 보르도 와인 1호(샤또 마로 벨뷰+샤또 그랑 데지르)와 더덕 실속세트는 각각 3만6000원과 9만원에 판매한다. 지우현 기자

## 롯데백 대구·상인점,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

전년대비 사전 예약 판매 시기 1-2주 빨라져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은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식품매장에서 설 선물세트를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2016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 행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설 선물을 상담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기업체나 단체, 개인고객 등의 명절 선물세트상담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사전예약 전문매장'을 각 점 식품매장에 별도로 마련해 상담전문요원을 상주시켜 개별적 상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 명절을 달포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선물세트 예약판매 행사는 예년에 비해 1-2주일 가량 빠르다.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으로 조성된 소비심리 회복 분위기를 명절 선물세트로 이어가기 위해 예년보다 일찍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하는 것으



로 풀이된다. 대구지역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 명절 사전 예약 판매를 통해 명절 대표 선물세트 품목인 청과와 정육, 건강식품 등 120여 품목을 최고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는 계속된 불황에 합리적 가격대를 우선시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와 명절 수요를 미리 예측해 팔리지 않는 상품에 대한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올해 설 선물세트 구성의 특징은 한우나 청과, 굴비 등 신선식품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우현 기자

대개 명절 직전에 신선식품을 구입하던 과거와 달리 백화점 선물세트의 품질에 대한 믿음과 함께 과학적인 할인 혜택에 소비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면서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롯데백화점 대구점 및 상인점의 전체 명절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량 중 신선식품의 비중은 지난해의 경우 전체 판매량의 20%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이번 사전 예약판매 기간동안 주요 상품군별 할인율은 전통적인 인기품목인 한우의 경우 10-15%, 굴비는 15-20%, 건과 및 곶감 20-25%, 와인 40-70%, 건강식품 20-70% 등이다. 또한 명절 대표상품인 GNC 뉴 액티브-씨(은가죽건강세트1호)와 대상웰라이프 홍삼기력골드프리미엄을 각각 2만7천원과 3만6천원에 판매하고 KY 보르도 와인 1호(샤또 마로 벨뷰+샤또 그랑 데지르)와 더덕 실속세트는 각각 3만6천원과 9만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정재욱 식품팀장은 "과거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 실적 데이터를 토대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인기 품목을 엄선하고 축산, 농산, 수산, 가공식품 등 가능한 모든 상품군을 최대한 할인폭으로 준비해 여유롭게 미리 설 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고 전했다. 지우현 기자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내년 사업비 548억원 확보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16년도 기반시설예산의 46% 차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상수도분야 국비 지원 최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도 기반시설분야 사업비로 전국 경제자유구역중 최대 규모인 548억원(국비 277억원)을 확보하고,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내부간선도로, 상수도시설, 폐수시설, 완충저류시설 등의 건설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

내년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분야 주요사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458억원, 내부간선도로 건설사업 36억원,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 40억원,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사업 7억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7

억원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내년도 기반시설 총 예산중 46%를 차지해 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 시 월등하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예산에 비해 356억원이 증액됐다.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경산시 하양읍과 와촌면에 377만888㎡(114만평) 규모로 조성중인 경산지식산업지구와 4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로, 물동량 수송원활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지구 완공시기인 2018년도 준공을 목표로 예산을 집중투자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중 상수도 분야의 경우 현재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지역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내년도 국비 예산 2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최초로 국비 지원을 받은 사례로 타 경제자유구역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영식 기자



## 경북교육청, 배려와 나눔 실천학생에 장학금 전달

경북교육청은 올해 청렴인성 장학생 31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인성장학금은 2011년부터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정보 지식인대회, 부서평가 등에서 받은 시상금 등과 매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장학생은 각급 학교에서 추천 받은 청렴실천 학생과 선형 등으로 경북교육의 위상을 높인 학생을 선발했으며, 올해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21명 등 모두 31명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총 52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들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몸소 실천해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이다.

특히 포항 대도중학교 이재하, 서동현, 손준혁 등 2학년 3명은 포함에서 170만원이 든 돈 가방을 길에서 주워 주인을 찾아 줬고, 봉화 인터네트 금학준 학생은 노인복지센터 등 식사도우미, 일손돕기 등 국내 봉사활동과 최근에는 해외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2년간 총 535시간의 왕성한 국내외 봉사실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자유현 기자**

## 경북대 2016학년도 정시모집 9747명 지원 경쟁률 4.38대 1

경북대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226명 모집에 총 9747명이 지원해 전체 4.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집시기별로 보면 '가'군은 1153명 모집에 5228명이 지원해 4.53대1, '나'군은 1073명 모집에 4519명이 지원해 4.2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캠퍼스별로 보면 대구캠퍼스는 1818명 모집에 8295명이 지원해 4.56대1, 상주캠퍼스는 408명 모집에 1452명이 지원해 3.5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군별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를 보면 '가'군은 자연과학대학 지구시스템과학부 35명 모집에 321명이 지원해 9.17대1의 경쟁률을, '나'군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과학과로 26명 모집에 219명이 지원해 8.4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북대는 실기고사를 '가'군(예능계열)은 내년 1월 8일 실시하고, '나'군(체능계열)은 1월12일 실시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28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현 기자**

## 대구교육연구정보원 인문학 영상 콘텐츠 15편 제작·보급

대구교육연구정보원 교육미디어센터에서는 학생들의 행복역량과 인문역량을 키우기 위해 인문학 동영상 콘텐츠 15편을 제작하고, 대구교육미디어센터 누리집에 올려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보급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실수업개선 및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교수·학습에 도움이 되는 교육 정보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학교 안전 영상 8편을 제작·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대구시교육청의 초·중·고 인문학 추천도서 100선 중 15편을 엄선해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각 인문학 도서의 내용을 쉽게 풀어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한자나 관련 단어 등을 자막으로 설명해 수업에 활용할 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샌드아트, 디지털 그림자 인형극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재미와 흥미를 더했다.

대구교육미디어센터 누리집(<http://media.edunavi.kr>)/학생/공통 메뉴에서 누구나 시청가능하다. **자유현 기자**

## 대구서부교육지원청, 평리초등 옹벽에 벽화로 새단장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서구 평리초등 옹벽의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이번 벽화그리기는 포크 아트 '하이드의 정원'을 운영하는 이영주씨(여·46)의 교육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를 주제로 그려졌다.

대구시 서구에 위치한 대구평리초등학교는 세입증대와 운동장 확장을 위해 1984년 옹벽상가를 조성해 운영했으나, 30년 이상의 사

용으로 인한 노후화 및 상가 자연감소에 따라 빈 상가에 대한 벽막음 공사를 한 후 벽화를 그려 미관을 가꾸고자 한 것이다. 서구청에서도 예산 5000여만원을 투입, 출입구 외벽 벽화 제작에 참여했다.

동평중 2학년 평소연 학생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영주씨는 벽화를 그려줄 교육기부자 모집에 흔쾌히 나서 지난 여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휴일을 반납한 채 '어린왕자'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벽면에 그려나갔고, 마침내 지난 20일 어린왕자 동화 한 편이 평리초 옹벽상에 완성됐다.

이영주씨는 평소에도 교육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평초 북도 벽화그리기 밀그림 작업, 경덕여고 벤치 도색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영주씨는 "제가 그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보람이고 교육기부활동으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된 점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교육기부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벽화 작업으로 평리초 옹벽에는 '어린왕자'에 나오는 삽화 7점과 글씨가 새겨져 평리초 학생 및 이웃 주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이다. **자유현 기자**

# DHU 자기주도형 사회봉사 프로그램 시상식

## 대구한의대, 학생들의 교육봉사 인성 함양,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

대구한의대학교 기린봉사단은 지난 28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2015학년도 DHU 자기주도형 사회봉사 프로그램' 시상식을 가졌다.

DHU 자기주도형 사회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은 2015년 5월, 35개 학부(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및 면접을 통해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요양원, 재래시장,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봉사기관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의 전공과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 결과를 평가한 이번 공모전에서 △대학 봉사 동아리 '자연사랑'이 최우수상 △상담심리학과 '심봉사' 간호학과 '순정으로 사랑'이 우수상에 선정돼 상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자연사랑은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 봉사, 교육봉사, 통역봉사, 캠페



인봉사, 지역사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우수상으로 선정된 △상담심리학과 심봉사 동아리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코칭, 아웃리치 등 청소년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간호학과 순정으로 사랑은 굿 실버 노인센터와 결연을 맺어 정기방문, 건강교육, 운동지도, 예방교육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자연사랑 정은진 학생(4학년)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에서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동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한의대학교 자기주도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재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지식과 재능을 바탕으로 봉사활동 기관 섭외, 프로그램 구성, 봉사일정 등 봉사활동 전반을 기획하는 등 자발적 교육기부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봉사프로그램이다. **신경운 기자**

## 안동과학대, 자유학기제 활성화 MOU 체결

### 안동 관내 6개 중학교와 협약

안동과학대학교는 29일 오전 11시 교내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안동 관내 6개 중학교(안동중학교, 안동여자중학교, 북동여자중학교, 길주중학교, 경안중학교, 경덕중학교)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안동과학대학교 권상용 총장을 비롯한 각 중학교장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 및 체험학습 정보 자료의 상호교환, 진로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양 기관 발전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이다. '자유학기제'란 중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강화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안동과학대학교(총장 권상용)는 "중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발현하고,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자유학기제 중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 안동 영문고, 2015 학교교육과정운영 최우수학교 선정

### 학생중심 교육과정운영

### 학생만족도 제고

안동 영문고등학교는 경북도교육청 주관 2015 학교교육과정운영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안동지역 비평준화 입시제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16학년도 대학입시에 미국 인디애나주 볼(Ball)주립대학 2년 연속 합격률 비웃, 일본과 서울, 지방의 우수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시모집의 대입전형에 대비한 영문고의 창의·인성 학교교육과정운영이 좋은 결과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입시경쟁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영문고등학교만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즐거움 학교, 오고 싶은 학교'

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학생을 대폭 감소시키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뒀다.

1학년 김모 군은 "중학교 때부터 체격이 왜소해 친구들의 따돌림과 놀림을 당했는데, 영문고에서 제공하는 개별 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됐고 지금은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말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적용을 주도하는 배재한 교감은 "경쟁중심의 사회에서 방향을 잃기 쉬운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멘토가 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경험,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용구 기자**

## 영남대-구미시, 향토생활관 사용 업무협약 체결

### 관·학 협력체제 구축

영남대와 구미시가 관·학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영남대 향토생활관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영남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구미시청 중회의실에서 양 기관은 영남대 향토생활관 시설 사용과 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합의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구미시는 영남대에 총 2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20명의 기숙사 입사생을 추가로 선발하게 된다.

시는 영남대 향토생활관 건립 당시인 2008년 3억원의 기금을 출연, 입사생 30명을 선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총 50명을 선발하게 됐다.

노석균 영남대 총장은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기숙시설 확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1월 건립된 영남대 향토생활관은 수용인원 782명 규모의 기숙사다. 구미시를 포함해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대구시 달성군 등 대구·경북의 24개 자치단체가 기금을 출연했다.

기금을 출연한 각 자치단체들이 일정 비율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신경운 기자**

##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환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 학업 성적과 유학생할

### 우수한 8명 학생 선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교내 배주년기념관에서 '2015 교환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지난 1년간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수학한 세계 각국의 교환학생 중 학업 성적과 유학생할이 우수한 8명의 학생을 선발해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 브랜드 제고, 세계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영찬 동국대 경주캠퍼스 국제교류처장은

"우리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우수 학생 유치의 기반을 조성하고, 본교에서 수학한 학생들의 애교심 함양과 해외 동문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우수교원 장학생 및 우수자비 장학생 지원사업, 한국어능력 시험(TOPIK)시험기관 선정, 2015 주요국가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법무부의 유학생 조기적응 지원센터 등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4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부문 전국 16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국제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윤용찬 기자**



# 여성 문화

광역시보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12

## 연예가 소식

이재룡·유호정 부부, 희망의 집짓기 1억 기부 "따뜻한 선물되길"



배우 이재룡·유호정 부부가 희망의 집짓기 1억 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다. 한국해비타트 측은 29일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희망의 집짓기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는 국제 NGO단체. 불어 다친 한파를 막지 못하는 집에서 더한 추위를 느끼는 이웃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한다. 이재룡·유호정 부부는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집이 선물 되길 바란다"며 후원금을 전했다. 이재룡·유호정 부부는 2003년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꾸준히 건축 봉사에 참여해 왔으며 정기후원자로 참여해 왔다.

이미연 비키니 자태 공개 '11자 복근+B컵 볼륨'



이미연의 명품 몸매가 재조명 받고 있다. 과거 이미연의 스타일리스트는 개인 블로그에 그녀의 명품 몸매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미연의 일상적인 모습 외에도 비키니 몸매가 드러난 과감한 포즈가 포함돼 있다. 특히 꾸준한 운동으로 다져진 탄력 넘치는 몸매가 감탄을 자아냈다. 누리꾼들은 "이미연 몸매 관리 비법 궁금하다", "이미연 대박이네", "이미연 몸매 진짜 좋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진희, 초미니 드레스 입고 '허벅지 노출'



박진희 과거 모습이 주목받고 있다. 박진희는 과거 화보 촬영을 통해 세시한 매력력을 발산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진희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누워 포즈를 취하고 있다. 드레스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와 탄탄한 몸매가 주목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냉장고를 부탁해 박진희 매력적이다", "냉장고를 부탁해 박진희, 오랜만이였다", "박진희 남편 사랑 많이 받는 것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진희는 지난 28일 방송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예능감을 과시했다.

뜻밖의 귀인이 도와 크게 발전할 수. 의지와 의리가 강한 여러 사람이 모여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큰 것을 얻을 것이다. 인연한 생각과 감정을 버려라. 마음에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도 체크해 볼이 좋을 듯. 4·5·6월생 남쪽이 길하고 붉은색 옷을 입어라.

헛된 망상과 과욕이 일을 곤경에 처하게 만든다.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악운을 호운으로 만들 수. 모든 일은 악기로 꿰매지 말고 손리대로 행하라. 2·8·11월생 안정된 마음을 찾아 마음고생을 없애라.

주위의 부추김에 신중을 기하라. 급하게 서두르다 허위침에 물거품으로 변할 듯. 정성을 다 해서 자신의 구상력을 발휘하라.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었는가. 무엇이든 노력하면 이루어 수 있다. 애정은 출다기만 하니 시간만 낭비할 뿐.

모든 일의 결말같이 서있으니 의욕이 떨어지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니 협조자가 나타나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겠다. 1·4·9월생 현재 하고 있는 일 용기 잃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 남녀 문제 구설이 따르니 자기관리 철저.

적을 만들면 불리. 모든 사람들과 친분관계 있어야 좋은 일이 생길 수. 양보와 포기는 금물이다. 생각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 사·초·후생 세 사람도 좋지만 남의사람 탐내다간 모든 것들이 불완전 상태라 신경성질환이 염려된다.

계획은 좋으나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지마라. 지금은 매사에 절약할 때다. 애정은 다소 복잡하구나. 마음 깊은 곳까지 갈증이 생기자. 심신을 안정시키고 하나하나 마음정리가 필요할 때 큰 욕심은 후일 모든 것을 잃게 될 듯.

마음은 몹시 급해도 서두름은 절대금물. 원숭이·뱀·소파의 힘을 빌리다만 순조롭게 달성할 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욕심으로 대하면 모든 사림이 멀어지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라. 빨간색 옷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듯.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판단력이 분명해야 할 때이다. 1·4·9월생 주변을 정리하라. 심신이 불안하고 신념이 없는 사람처럼 우왕좌왕 하는 심정이 밍마다 신란한 공속에서 해매는 상태구나. 먼 길 여행을 삼갈 것.

현재는 모든 일들이 다소 약하게 이루어지나 실망은 금물. 안전제는 기다린 보람을 느끼는 날이 오니 신의를 지키며 충실할 때 기쁨만이 다가오니 마음에 문을 열어 활짝 웃어라. 애정관계는 다행이 예상될 듯.

미룬 나무에 물을 갑자기 주면 뿌리가 썩어 죽는 법. 천천히 확실하게 사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어라. 처음에는 어려운듯하나 갈수록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7·사·로생 생인 가정 모두 한길로 나가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이 내것이니라.

두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 불어오니 서로가 마음이 불안정하고 눈치맞춤만 할 뿐이다. 고리가 같을 땀 흘릴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라. 작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큰 것을 성취할 수. 산병 우려되니 건강 조심할 것.

마음먹은 일이 별 어려움 없이 풀려나가지 만 지나친 자만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므로 주의함이 좋을 듯.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진실한 태도가말로 모든 것을 더 단게 얻을 알라. 애정은 길하나 간경에 신경 써야 할 때다.

# '제야의 타종행사'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열려

대구시, 12월31일 밤 9시부터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종각



대구시는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2016년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타종행사를 12월31일 저녁 9시부터 새해 첫날인 1월1일 새벽 0시 30분까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막으려 한다. 제야의 타종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나도 예술인', '도심 속 야외클럽',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타종행사의 3가지 주제로 열린다. 시민이 대거 참여하는 창의적인 문화행사로 31일 저녁 9시부터 식전 문화행사와 타종행사, 식후 문화행사 순으로 치러진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5년 한 해 동안 대구 재창조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16년 사람과 기술이 물리는 '스마트 행복시티'를 기치로 대구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혁신의 한 해로 만들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 ■그날의 감동 재현

"나도 예술인"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식전

행사는 지역 고등학생·대학생 및 신진예술가, 인디밴드 등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와 더불어 올 한 해 지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DIMF, 생활예술제 등 지역축제 참여팀도 한자리에 모여, 뮤지컬 갈라 콘서트, 락밴드 등을 통해 그날의 감동을 재현한다. 올해 제야의 타종행사에는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돼, '도심 속 야외 클럽'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종각네거리로 4-Way Big Screen을 설치해 추운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어디서나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신년 메시지 낭독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럭키 몽키 플래시몹'을 준비해 시민 모두가 행사에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타종 직전에는 '라라라', '내사랑' 등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SG워너비'를 특별 초청, 행사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달아오르게 한다. 문화행사 이후 이어지는 타종행사에는 주요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올해를 빛낸 자랑스러운 시민들이 타종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대구시는 타종인사를 지난해 보다 3명 증가한 33명으로 확대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5명의 시민을 확정했다. 선정된 33명의 타종인사들은 행복해, 사랑해, 화합해, 희망해, 창조해 등 5개의 팀으로 나눠 250만 대구시민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 달구벌대중을 33회 타종하게 된다. 타종 이후에는 시민들의 희망 풍선 및 소원지 날리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동희 시의회 의장의 신년메시지 낭독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식후 문화행사에서는 종각네거리를 중심으로 남성중장년 '아르노바'의 선창과 함께 타종에 참여한 시민과 '희망의 나라로' 합창 후 희망찬 새해를 여는 희망불꽃쇼를 진행한다.

### ■경대병원-동인치안센터 통제

대구시는 제야의 타종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31일 밤 11시부터 2016년 1월 1일(금) 새벽 0시 30분까지 중구청-공평네거리, 경대병원-동인치안센터 구간의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경찰, 소방,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900여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통제 구간인 종각네거리 중앙에 임시 설치하는 사방형 대형스크린(4-Way Big Screen)에 펜스를 두르는 등 안전사고 예방도 한층 강화한다. 무대 밖 공원 곳곳에서는 타종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작지만 따뜻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국은행 인도부근에서는 대구적십자자원봉사단체에서 시민들에게 잠시의 추위를 잊게 할 수 있는 따뜻한 커피, 녹차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핫초코도 준비하는 등 가족단위 참여자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다. 국채보상기념사업회 건물 앞과 공원 가장자리에 시민들의 손과 발을 녹일 수 있는 친환경 탄소 핫팩(5,000개), 소원지, 붉은 원숭이 락키 풍선(5,000개)도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자유현 기자

## 여자만 아는 고통 '생리전 증후군'...

우울증에 도박까지

#1. 할리우드 여배우 위노나 라이더(44)는 2002년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가 훔친 것은 양말, 액세서리 등 값싼 물건들이었다. #2.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모(40)씨는 2012년 지인의 자택에서 현금 80만원, 자기앞 수표 10장 등 200만원 상당의 돈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일탈 행동이 "생리전 증후군에 의한 충동적인 도박 때문"이라고 진술했던 것.

### ■생리전 증후군은 무엇인가

'생리전 증후군(PMS: Pre Menstrual Syndrome)'은 가임여성에게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리, 즉 '마술'에 걸리기 전 '마녀'가 되는 현상을 뜻한다. 생리전 증후군은 생리통과 전혀 다른 질환이다. 무엇보다 발생 시기가 다르다. 생리 전에 나타나면 생리전 증후군, 생리 후 나타나면 생리통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리전 증후군은 보통 생리를 시작하기 4~10일 전부터 일어나는 다양한 신체·정서적 증상들이다. 전체 가임 여성의 약 75%가 일생에서 최소 한 차례씩 경험한다. 이 중 3~8%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증상은 150여 가지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유방통, 두통, 부종, 변비, 설사, 식욕 증가 등 신체적인 증상이 있다. 또 우울함, 집중력 저하, 피로감, 신경과민 등의 정서적인 증상들도 나타난다. 심한 경우 자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도박 혹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호르몬·신경전달물질 등의 변화로 추정한다. 생리주기에 따라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신경호르몬 엔도르핀·세로토닌 등의 불균형이나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미네랄, 비타민 등의 부족이나 불균형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 ■고성에도 베풀기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여성 대부분이 미약한 수준의 우울감이나 신경과민을 느끼는 데 그치지만, 극히 일부 심각하게 겪는 여성이 문제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하는 탓이다. 실제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30대 워



킹맘 이모씨는 20년 동안 생리전 증후군을 겪고 있다. 생리 시작 일주일 전부터 급격히 우울해지고, 예민해지는 등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듯하다. 직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가정에서는 남편과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삶의 의욕도 없어진다. 증상이 매달 반복되다 보니 남편도 그 시기 좁 되면 퇴근을 늦추고, 아들도 슬금슬금 눈치를 살핀다. 사실 전에는 막상 생리를 시작하면 이런 증상이 모두 사라지므로 이씨 스스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아들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자신에게 충격을 받아 치료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부산 서면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40대 가정주부 박모씨가 옷을 훔치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생리 도박증에 시달려 3년 동안 무려 옷 500여 벌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옷을 입거나 판매하기 위해 훔친 것이 아니라 생리할 때가 되면 물건을 훔치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 충동적으로 훔치게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생리도박...유죄인가, 무죄인가?

이처럼 심각하게 일상생활을 해질 수 있는 생리전 증후군이지만, 이를 '질병'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부족한 편이다. 당사자인 여성부터도 큰 감정의 기복을 겪거나, 도박충동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남성의 경우 아예

이런 증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생리도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유·무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무죄가 되거나 형이 경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 심리적 불안정성과 극도로 예민해지는 여성 정서를 고려한 판단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거나 도박 전과가 있는 경우, 생리도박이 아닌데도 이를 핑계 삼아 절도를 범한 것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생리전 증후군을 호소했다더라 전과가 있고, 평소 관련 치료를 성실하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가 된 사례가 있다. 반대로 백화점에서 30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여성이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인정돼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리도박으로 입건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전문심리위원이 면담 조사하고, 정신 감정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 범죄 유무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피임약 복용으로도 증상 완화... 피임약 편견 없어야"

전문가들은 여성이 생리전 증후군을 무작정 참으면 증상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이어 생리전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병원 진료를 받은 후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증상을 한층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증상이 가벼우면 식사 조절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호전시킬 수 있다. 채소, 과일, 생선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금연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하면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요가, 산책 등의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해 정서적 증상 개선을 돕는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증상은 산부인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피임약을 매일 하루 1알씩 같은 시간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피임약도 종류가 다양해져 전문 의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예경 대한산부인과사회 피임생리연구회 위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피임약 복용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임약은 생리전 증후군 치료, 생리통 완화를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피임약만 복용해도 증상이 많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선입견을 품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은진 기자

## 첫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졸업작품전 성황



대구시가 주최하고 지역미술대학연합회가 주관한 '2015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작품전'이 관객 7000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27일 성황리에 폐막했다. 2015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작품전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불리대, 대구예술대 등 지역 6개 미술대학 185명의 학생들이 참여, 지난달 17~12월 27일까지 6주간 대구예술발전소에서 회화·조각·사진·미디어·설치 작품들을 전시했다. 이번 연합작품전은 지역 6개 미술대학 순수 미술 전공 졸업생의 작품을 대학 연합전시로 묶고, 참여대학의 교수, 학생과 협력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시 유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예술가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서 주최하고 지역미술대학 연합회에서 주관해 올 해 처음 개최된 졸업작품전은 참여 학생 20여 명의 작품을 갤러리 등에서 구입하는 등 역량 있는 신진작가의 데뷔무대로의 자리매김도 기대된다.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작품전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에도 큰 역할을 했다. 매년 대학별로 개최되던 졸업작품전을 대구예술발전소라는 전문 전시공간에서 합동 개최함으로써 7000여 명의 관객들에게 대학 졸업생들의 미술경향과 특성을 비교·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 간 전시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협력 큐레이터의 기획 아래 6개 미술대학의 작품들을 망라한 전시구성은 기존 미술전시의 유사한 성향이 아닌 신선한 구성과 대학생들의 실력정신과 창의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시는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작품전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둬 나갈 수 있도록 참여 학생 중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 학생을 대구의 대표적인 청년작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청년미술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전시회는 2016년에도 계속 개최되며 '대구권 미술대학 연합졸업작품전 → 청년미술프로젝트 → 대구아트페어'가 연결되는 지역 미술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최윤희 기자

# 손흥민 날카로운 결승골 2-1로 왓포드에 승리



후반 종료직전 감각적 오른발 힐킥으로 결승골 토트넘 핫스퍼, 왓포드 잡고 3연승 달려

손흥민(23·토트넘)이 긴 침묵을 깨고 골맛을 봤다. 토트넘 핫스퍼는 왓포드를 잡고 3연승을 달렸다.

손흥민은 29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왓포드의 비커리 로드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왓포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44분 결승골을 터뜨렸다.

5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손흥민은 후반 23분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손흥민은 1-1로 맞선 후반 종료 직전 전기를 입증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키어런 트리피어가 올려준 공을 감각적인 오른발 힐킥으로 연결했다.

손흥민의 발을 떠난 공은 왓포드 골키퍼 고메스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해 골문 안으로 향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맛을 본 것은 9월20일 크리스털 팰리스전 이후 3개월여 만이자 시즌 두 번째였다.

고메스가 허탈한 웃음을 짓는 사이 손흥민은 관중석으로 달려가 팬들과 기쁨을 만끽했다.

최근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인상을 준 손흥민은 이번 골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침묵같은 결승골로 왓포드를 2-1로 제압, 9승8무2패(승점 35)로 선두권 경쟁에 뛰어 들었다.

뉴스

# 김현수 25인 로스터 들면 마이너리그 거부권 행사

1차 목표, 스프링캠프 주전 경쟁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일단한 김현수(27)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겨울을 앞두고 있다.

김현수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컨벤션벨라지움에서 국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김현수의 계약 세부 내용은 베일에 가려 있었다. 이날도 김현수는 “에이전트에 입일해서 2년 총액 700만 달러 계약이라는 사실밖에 모른다. 계약서를 봤지만 영어로 돼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에이전트인 이예랑 리코스포츠 대표가 어느 정도 공금증을 풀어줬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계약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1년차부터 마이너리그 거부권 조항을 갖고 있다. 25인 로스터에만 들면 부상으로 인해 재할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이너리그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 볼티모어와 계약했던 윤석민(KIA) 역시 2년차부터 이 조항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25인 로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요원했고 결국 국내로 ‘유턴’을 선택했다. 물론 김현수는 상황이 다르다. 개막 로스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확률은 희박하다. 그러나 이왕이면 백업요원이나 주전 좌익수로 시즌을 맞아야 한다.

김현수 역시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에 가면 루키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해서 주전으로 남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김현수는 이미 몸 만들기에도 돌입했다. 정식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정확히 얼마가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다. 금액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다.

김현수의 행선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가 될 전망이다. 볼티모어는 미국 서부 지역에 거주 중인 구단 선수들을 위해 로스앤젤레스에도 훈련 시설을 두고 있다. 김현수도 이곳에서 현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후 김현수는 2월에 여류를 두고 볼티모어의 스프링 캠프지인 플로리다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볼티모어



의 야수 집결일이 2월 중순에 있다. 그보다 조금 일찍 이동할 계획이다. 구단 측에서도 김현수가 일찍 이동하는 것에 대해 반기고 있다”고 했다.

뉴스

## 대잠 코아루타워

# 대잠 코아루타워(오피스텔) 공고

- 분양대상 : 건축물외의 부지에 관한 제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0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제1호, 제41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제1호, 제49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51조제1항제1호, 제52조제1항제1호, 제53조제1항제1호, 제54조제1항제1호, 제55조제1항제1호, 제56조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제1호, 제58조제1항제1호, 제59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제1호, 제62조제1항제1호, 제63조제1항제1호,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제1호, 제67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제1호, 제69조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 제71조제1항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제73조제1항제1호, 제74조제1항제1호, 제75조제1항제1호, 제76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제1호, 제79조제1항제1호, 제80조제1항제1호, 제81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제1항제1호,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1호, 제87조제1항제1호, 제88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제1호, 제93조제1항제1호, 제94조제1항제1호, 제95조제1항제1호, 제96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제1호,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1항제1호, 제101조제1항제1호, 제102조제1항제1호, 제103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 제105조제1항제1호, 제106조제1항제1호, 제107조제1항제1호, 제108조제1항제1호, 제109조제1항제1호, 제110조제1항제1호, 제111조제1항제1호, 제112조제1항제1호, 제113조제1항제1호, 제114조제1항제1호, 제115조제1항제1호, 제116조제1항제1호, 제117조제1항제1호, 제118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제1호, 제120조제1항제1호, 제121조제1항제1호, 제122조제1항제1호, 제123조제1항제1호, 제124조제1항제1호, 제125조제1항제1호, 제126조제1항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제128조제1항제1호, 제129조제1항제1호, 제130조제1항제1호, 제131조제1항제1호, 제132조제1항제1호, 제133조제1항제1호, 제134조제1항제1호, 제135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1호, 제138조제1항제1호, 제139조제1항제1호, 제140조제1항제1호, 제141조제1항제1호,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1항제1호, 제144조제1항제1호, 제145조제1항제1호,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제1호, 제148조제1항제1호, 제149조제1항제1호, 제150조제1항제1호, 제151조제1항제1호, 제152조제1항제1호, 제153조제1항제1호, 제154조제1항제1호, 제155조제1항제1호, 제156조제1항제1호, 제157조제1항제1호, 제158조제1항제1호,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제1호, 제161조제1항제1호, 제162조제1항제1호, 제163조제1항제1호, 제164조제1항제1호, 제165조제1항제1호, 제166조제1항제1호, 제167조제1항제1호, 제168조제1항제1호, 제169조제1항제1호, 제170조제1항제1호, 제171조제1항제1호, 제172조제1항제1호, 제173조제1항제1호, 제174조제1항제1호, 제175조제1항제1호, 제176조제1항제1호, 제177조제1항제1호, 제178조제1항제1호, 제179조제1항제1호, 제180조제1항제1호, 제181조제1항제1호, 제182조제1항제1호, 제183조제1항제1호, 제184조제1항제1호, 제185조제1항제1호, 제186조제1항제1호, 제187조제1항제1호, 제188조제1항제1호, 제189조제1항제1호, 제190조제1항제1호, 제191조제1항제1호, 제192조제1항제1호, 제193조제1항제1호, 제194조제1항제1호, 제195조제1항제1호, 제196조제1항제1호, 제197조제1항제1호, 제198조제1항제1호, 제199조제1항제1호, 제200조제1항제1호, 제201조제1항제1호, 제202조제1항제1호, 제203조제1항제1호, 제204조제1항제1호, 제205조제1항제1호, 제206조제1항제1호, 제207조제1항제1호, 제208조제1항제1호, 제209조제1항제1호, 제210조제1항제1호, 제211조제1항제1호, 제212조제1항제1호, 제213조제1항제1호, 제214조제1항제1호, 제215조제1항제1호, 제216조제1항제1호, 제217조제1항제1호, 제218조제1항제1호, 제219조제1항제1호, 제220조제1항제1호, 제221조제1항제1호, 제222조제1항제1호, 제223조제1항제1호, 제224조제1항제1호, 제225조제1항제1호, 제226조제1항제1호, 제227조제1항제1호, 제228조제1항제1호, 제229조제1항제1호, 제230조제1항제1호, 제231조제1항제1호, 제232조제1항제1호, 제233조제1항제1호, 제234조제1항제1호, 제235조제1항제1호, 제236조제1항제1호, 제237조제1항제1호, 제238조제1항제1호, 제239조제1항제1호, 제240조제1항제1호, 제241조제1항제1호, 제242조제1항제1호, 제243조제1항제1호, 제244조제1항제1호, 제245조제1항제1호, 제246조제1항제1호, 제247조제1항제1호, 제248조제1항제1호, 제249조제1항제1호, 제250조제1항제1호, 제251조제1항제1호, 제252조제1항제1호, 제253조제1항제1호, 제254조제1항제1호, 제255조제1항제1호, 제256조제1항제1호, 제257조제1항제1호, 제258조제1항제1호, 제259조제1항제1호, 제260조제1항제1호, 제261조제1항제1호, 제262조제1항제1호, 제263조제1항제1호, 제264조제1항제1호, 제265조제1항제1호, 제266조제1항제1호, 제267조제1항제1호, 제268조제1항제1호, 제269조제1항제1호, 제270조제1항제1호, 제271조제1항제1호, 제272조제1항제1호, 제273조제1항제1호, 제274조제1항제1호, 제275조제1항제1호, 제276조제1항제1호, 제277조제1항제1호, 제278조제1항제1호, 제279조제1항제1호, 제280조제1항제1호, 제281조제1항제1호, 제282조제1항제1호, 제283조제1항제1호, 제284조제1항제1호, 제285조제1항제1호, 제286조제1항제1호, 제287조제1항제1호, 제288조제1항제1호, 제289조제1항제1호, 제290조제1항제1호, 제291조제1항제1호, 제292조제1항제1호, 제293조제1항제1호, 제294조제1항제1호, 제295조제1항제1호, 제296조제1항제1호, 제297조제1항제1호, 제298조제1항제1호, 제299조제1항제1호, 제300조제1항제1호, 제301조제1항제1호, 제302조제1항제1호, 제303조제1항제1호, 제304조제1항제1호, 제305조제1항제1호, 제306조제1항제1호, 제307조제1항제1호, 제308조제1항제1호, 제309조제1항제1호, 제310조제1항제1호, 제311조제1항제1호, 제312조제1항제1호, 제313조제1항제1호, 제314조제1항제1호, 제315조제1항제1호, 제316조제1항제1호, 제317조제1항제1호, 제318조제1항제1호, 제319조제1항제1호, 제320조제1항제1호, 제321조제1항제1호, 제322조제1항제1호, 제323조제1항제1호, 제324조제1항제1호, 제325조제1항제1호, 제326조제1항제1호, 제327조제1항제1호, 제328조제1항제1호, 제329조제1항제1호, 제330조제1항제1호, 제331조제1항제1호, 제332조제1항제1호, 제333조제1항제1호, 제334조제1항제1호, 제335조제1항제1호, 제336조제1항제1호, 제337조제1항제1호, 제338조제1항제1호, 제339조제1항제1호, 제340조제1항제1호, 제341조제1항제1호, 제342조제1항제1호, 제343조제1항제1호, 제344조제1항제1호, 제345조제1항제1호, 제346조제1항제1호, 제347조제1항제1호, 제348조제1항제1호, 제349조제1항제1호, 제350조제1항제1호, 제351조제1항제1호, 제352조제1항제1호, 제353조제1항제1호, 제354조제1항제1호, 제355조제1항제1호, 제356조제1항제1호, 제357조제1항제1호, 제358조제1항제1호, 제359조제1항제1호, 제360조제1항제1호, 제361조제1항제1호, 제362조제1항제1호, 제363조제1항제1호, 제364조제1항제1호, 제365조제1항제1호, 제366조제1항제1호, 제367조제1항제1호, 제368조제1항제1호, 제369조제1항제1호, 제370조제1항제1호, 제371조제1항제1호, 제372조제1항제1호, 제373조제1항제1호, 제374조제1항제1호, 제375조제1항제1호, 제376조제1항제1호, 제377조제1항제1호, 제378조제1항제1호, 제379조제1항제1호, 제380조제1항제1호, 제381조제1항제1호, 제382조제1항제1호, 제383조제1항제1호, 제384조제1항제1호, 제385조제1항제1호, 제386조제1항제1호, 제387조제1항제1호, 제388조제1항제1호, 제389조제1항제1호, 제390조제1항제1호, 제391조제1항제1호, 제392조제1항제1호, 제393조제1항제1호, 제394조제1항제1호, 제395조제1항제1호, 제396조제1항제1호, 제397조제1항제1호, 제398조제1항제1호, 제399조제1항제1호, 제400조제1항제1호, 제401조제1항제1호, 제402조제1항제1호, 제403조제1항제1호, 제404조제1항제1호, 제405조제1항제1호, 제406조제1항제1호, 제407조제1항제1호, 제408조제1항제1호, 제409조제1항제1호, 제410조제1항제1호, 제411조제1항제1호, 제412조제1항제1호, 제413조제1항제1호, 제414조제1항제1호, 제415조제1항제1호, 제416조제1항제1호, 제417조제1항제1호, 제418조제1항제1호, 제419조제1항제1호, 제420조제1항제1호, 제421조제1항제1호, 제422조제1항제1호, 제423조제1항제1호, 제424조제1항제1호, 제425조제1항제1호, 제426조제1항제1호, 제427조제1항제1호, 제428조제1항제1호, 제429조제1항제1호, 제430조제1항제1호, 제431조제1항제1호, 제432조제1항제1호, 제433조제1항제1호, 제434조제1항제1호, 제435조제1항제1호, 제436조제1항제1호, 제437조제1항제1호, 제438조제1항제1호, 제439조제1항제1호, 제440조제1항제1호, 제441조제1항제1호, 제442조제1항제1호, 제443조제1항제1호, 제444조제1항제1호, 제445조제1항제1호, 제446조제1항제1호, 제447조제1항제1호, 제448조제1항제1호, 제449조제1항제1호, 제450조제1항제1호, 제451조제1항제1호, 제452조제1항제1호, 제453조제1항제1호, 제454조제1항제1호, 제455조제1항제1호, 제456조제1항제1호, 제457조제1항제1호, 제458조제1항제1호, 제459조제1항제1호, 제460조제1항제1호, 제461조제1항제1호, 제462조제1항제1호, 제463조제1항제1호, 제464조제1항제1호, 제465조제1항제1호, 제466조제1항제1호, 제467조제1항제1호, 제468조제1항제1호, 제469조제1항제1호, 제470조제1항제1호, 제471조제1항제1호, 제472조제1항제1호, 제473조제1항제1호, 제474조제1항제1호, 제475조제1항제1호, 제476조제1항제1호, 제477조제1항제1호, 제478조제1항제1호, 제479조제1항제1호, 제480조제1항제1호, 제481조제1항제1호, 제482조제1항제1호, 제483조제1항제1호, 제484조제1항제1호, 제485조제1항제1호, 제486조제1항제1호, 제487조제1항제1호, 제488조제1항제1호, 제489조제1항제1호, 제490조제1항제1호, 제491조제1항제1호, 제492조제1항제1호, 제493조제1항제1호, 제494조제1항제1호, 제495조제1항제1호, 제496조제1항제1호, 제497조제1항제1호, 제498조제1항제1호, 제499조제1항제1호, 제500조제1항제1호, 제501조제1항제1호, 제502조제1항제1호, 제503조제1항제1호, 제504조제1항제1호, 제505조제1항제1호, 제506조제1항제1호, 제507조제1항제1호, 제508조제1항제1호, 제509조제1항제1호, 제510조제1항제1호, 제511조제1항제1호, 제512조제1항제1호, 제513조제1항제1호, 제514조제1항제1호, 제515조제1항제1호, 제516조제1항제1호, 제517조제1항제1호, 제518조제1항제1호, 제519조제1항제1호, 제520조제1항제1호, 제521조제1항제1호, 제522조제1항제1호, 제523조제1항제1호, 제524조제1항제1호, 제525조제1항제1호, 제526조제1항제1호, 제527조제1항제1호, 제528조제1항제1호, 제529조제1항제1호, 제530조제1항제1호, 제531조제1항제1호, 제532조제1항제1호, 제533조제1항제1호, 제534조제1항제1호, 제535조제1항제1호, 제536조제1항제1호, 제537조제1항제1호, 제538조제1항제1호, 제539조제1항제1호, 제540조제1항제1호, 제541조제1항제1호, 제542조제1항제1호, 제543조제1항제1호, 제544조제1항제1호, 제545조제1항제1호, 제546조제1항제1호, 제547조제1항제1호, 제548조제1항제1호, 제549조제1항제1호, 제550조제1항제1호, 제551조제1항제1호, 제552조제1항제1호, 제553조제1항제1호, 제554조제1항제1호, 제555조제1항제1호, 제556조제1항제1호, 제557조제1항제1호, 제558조제1항제1호, 제559조제1항제1호, 제560조제1항제1호, 제561조제1항제1호, 제562조제1항제1호, 제563조제1항제1호, 제564조제1항제1호, 제565조제1항제1호, 제566조제1항제1호, 제567조제1항제1호, 제568조제1항제1호, 제569조제1항제1호, 제570조제1항제1호, 제571조제1항제1호, 제572조제1항제1호, 제573조제1항제1호, 제574조제1항제1호, 제575조제1항제1호, 제576조제1항제1호, 제577조제1항제1호, 제578조제1항제1호, 제579조제1항제1호, 제580조제1항제1호, 제581조제1항제1호, 제582조제1항제1호, 제583조제1항제1호, 제584조제1항제1호, 제585조제1항제1호, 제586조제1항제1호, 제587조제1항제1호, 제588조제1항제1호, 제589조제1항제1호, 제590조제1항제1호, 제591조제1항제1호, 제592조제1항제1호, 제593조제1항제1호, 제594조제1항제1호, 제595조제1항제1호, 제596조제1항제1호, 제597조제1항제1호, 제598조제1항제1호, 제599조제1항제1호, 제600조제1항제1호, 제601조제1항제1호, 제602조제1항제1호, 제603조제1항제1호, 제604조제1항제1호, 제605조제1항제1호, 제606조제1항제1호, 제607조제1항제1호, 제608조제1항제1호, 제609조제1항제1호, 제610조제1항제1호, 제611조제1항제1호, 제612조제1항제1호, 제613조제1항제1호, 제614조제1항제1호, 제615조제1항제1호, 제616조제1항제1호, 제617조제1항제1호, 제618조제1항제1호, 제619조제1항제1호, 제620조제1항제1호, 제621조제1항제1호, 제622조제1항제1호, 제623조제1항제1호, 제624조제1항제1호, 제625조제1항제1호, 제626조제1항제1호, 제627조제1항제1호, 제628조제1항제1호, 제629조제1항제1호, 제630조제1항제1호, 제631조제1항제1호, 제632조제1항제1호, 제633조제1항제1호, 제634조제1항제1호, 제635조제1항제1호, 제636조제1항제1호, 제637조제1항제1호, 제638조제1항제1호, 제639조제1항제1호, 제640조제1항제1호, 제641조제1항제1호, 제642조제1항제1호, 제643조제1항제1호, 제644조제1항제1호, 제645조제1항제1호, 제646조제1항제1호, 제647조제1항제1호, 제648조제1항제1호, 제649조제1항제1호, 제650조제1항제1호, 제651조제1항제1호, 제652조제1항제1호, 제653조제1항제1호, 제654조제1항제1호, 제655조제1항제1호, 제656조제1항제1호, 제657조제1항제1호, 제658조제1항제1호, 제659조제1항제1호, 제660조제1항제1호, 제661조제1항제1호, 제662조제1항제1호, 제663조제1항제1호, 제664조제1항제1호, 제665조제1항제1호, 제666조제1항제1호, 제667조제1항제1호, 제668조제1항제1호, 제669조제1항제1호, 제670조제1항제1호, 제671조제1항제1호, 제672조제1항제1호, 제673조제1항제1호, 제674조제1항제1호, 제675조제1항제1호, 제676조제1항제1호, 제677조제1항제1호, 제678조제1항제1호, 제679조제1항제1호, 제680조제1항제1호, 제681조제1항제1호, 제682조제1항제1호, 제683조제1항제1호, 제684조제1항제1호, 제685조제1항제1호, 제686조제1항제1호, 제687조제1항제1호, 제688조제1항제1호, 제689조제1항제1호, 제690조제1항제1호, 제691조제1항제1호, 제692조제1항제1호, 제693조제1항제1호, 제694조제1항제1호, 제695조제1항제1호, 제696조제1항제1호, 제697조제1항제1호, 제698조제1항제1호, 제699조제1항제1호, 제700조제1항제1호, 제701조제1항제1호, 제702조제1항제1호, 제703조제1항제1호, 제704조제1항제1호, 제705조제1항제1호, 제706조제1항제1호, 제707조제1항제1호, 제708조제1항제1호, 제709조제1항제1호, 제710조제1항제1호, 제711조제1항제1호, 제712조제1항제1호, 제713조제1항제1호, 제714조제1항제1호, 제715조제1항제1호, 제716조제1항제1호, 제717조제1항제1호, 제718조제1항제1호, 제719조제1항제1호, 제720조제1항제1호, 제721조제1항제1호, 제722조제1항제1호, 제723조제1항제1호, 제724조제1항제1호, 제725조제1항제1호, 제726조제1항제1호, 제727조제1항제1호, 제728조제1항제1호, 제729조제1항제1호, 제730조제1항제1호, 제731조제1항제1호, 제732조제1항제1호, 제733조제1항제1호, 제734조제1항제1호, 제735조제1항제1호, 제736조제1항제1호, 제737조제1항제1호, 제738조제1항제1호, 제739조제1항제1호, 제740조제1항제1호, 제741조제1항제1호, 제742조제1항제1호, 제743조제1항제1호, 제744조제1항제1호, 제745조제1항제1호, 제746조제1항제1호, 제747조제1항제1호, 제748조제1항제1호, 제749조제1항제1호, 제750조제1항제1호, 제751조제1항제1호, 제752조제1항제1호, 제753조제1항제1호, 제754조제1항제1호, 제755조제1항제1호, 제756조제1항제1호, 제757조제1항제1호, 제758조제1항제1호, 제759조제1항제1호, 제760조제1항제1호, 제761조제1항제1호, 제762조제1항제1호, 제763조제1항제1호, 제764조제1항제1호, 제765조제1항제1호, 제766조제1항제1호, 제767조제1항제1호, 제768조제1항제1호, 제769조제1항제1호, 제770조제1항제1호, 제771조제1항제1호, 제772조제1항제1호, 제773조제1항제1호, 제774조제1항제1호, 제775조제1항제1호, 제776조제1항제1호, 제777조제1항제1호, 제778조제1항제1호, 제779조제1항제1호, 제780조제1항제1호, 제781조제1항제1호, 제782조제1항제1호, 제783조제1항제1호, 제784조제1항제1호, 제785조제1항제1호, 제786조제1항제1호, 제787조제1항제1호, 제788조제1항제1호, 제789조제1항제1호, 제790조제1항제1호, 제791조제1항제1호, 제792조제1항제1호, 제793조제1항제1호, 제794조제1항제1호, 제795조제1항제1호, 제796조제1항제1호, 제797조제1항제1호, 제798조제1항제1호, 제799조제1항제1호, 제800조제1항제1호, 제801조제1항제1호, 제802조제1항제1호, 제803조제1항제1호, 제804조제1항제1호, 제805조제1항제1호, 제806조제1항제1호, 제807조제1항제1호, 제808조제1항제1호, 제809조제1항제1호, 제810조제1항제1호, 제811조제1항제1호, 제812조제1항제1호, 제813조제1항제1호, 제814조제1항제1호, 제815조제1항제1호, 제816조제1항제1호, 제817조제1항제1호, 제818조제1항제1호, 제819조제1항제1호, 제820조제1항제1호, 제821조제1항제1호, 제822조제1항제1호, 제823조제1항제1호, 제824조제1항제1호, 제825조제1항제1호, 제826조제1항제1호, 제827조제1항제1호, 제828조제1항제1호, 제829조제1항제1호, 제830조제1항제1호, 제831조제1항제1호, 제832조제1항제1호, 제833조제1항제1호, 제834조제1항제1호, 제835조제1항제1호, 제836조제1항제1호, 제837조제1항제1호, 제838조제1항제1호, 제839조제1항제1호, 제840조제1항제1호, 제841조제1항제1호, 제842조제1항제1호, 제843조제1항제1호, 제844조제1항제1호, 제845조제1항제1호, 제846조제1항제1호, 제847조제1항제1호, 제848조제1항제1호, 제849조제1항제1호, 제850조제1항제1호, 제851조제1항제1호, 제852조제1항제1호, 제853조제1항제1호, 제854조제1항제1호, 제855조제1항제1호, 제856조제1항제1호, 제857조제1항제1호, 제858조제1항제1호, 제859조제1항제1호, 제860



# 영천 한해의 마무리를 장학금 기탁과 함께...

(주)화진 1000만원, 해원목재 1000만원 한일문화교류회 100만원 장학기금 기탁

지난 28일 (주)화진(대표이사 조만호)에서 1000만원, 해원목재(대표 이영은)에서 1000만원, 영천시 한일문화교류회(회장 박거원)에서 100만원의 장학기금을 지역의 우수인재양성에 써달라며 영천시장학회(이사장 김영석)에 기탁했다.

(주)화진(대표이사 조만호)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식사대접, 환경정비 활동, 이웃돕기 성금기탁 등 기업이윤의 지역환원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9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조만호 사장은 "아름다운 세상, 자연을 담은 기술을 추구하는 우리 회사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양성과 장학사업에도 꾸준히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통면에 소재한 해원목재 이영은 대표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고령면에 소재한 누에치는 마을을 운영하며 장학사업에 참여해오고 있었고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며 지역 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일을 생각하다 장학회를 찾게 됐다. 영천을 이끌어 갈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2005년 10월에 결성돼 시민들의 올바른 학습능력 배양에 앞장서며 한일 문화교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영천시 한일문화교류회 박거원 회장은 "작은 금액이지만 한일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회원들의 땀이 담겨있다. 지역의 인재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영석 이사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잊지 않고 장학회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의 중심이라는 신념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일만 기자

# 봉화군, 희망성금·장학금 잇따라... 추위 녹인다

문단1리 주민 희망 성금 3백만원 전달 봉화군향토회, 장학기금 2백만원 기탁

봉화군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할 어려운 농촌마을에서 희망 성금 300만원을 불우이웃에 전달하는가 하면 봉화군향토회에서 향토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2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성금이 잇따라 담지되고 있다.

추위가 거센 날, 도움을 받아야 할 전형적인 농촌마을 주민일동이 십시일반 모아 300만원이라는 큰사랑을 '희망 2016 이웃돕기 성금'에 전달해 화제다.

봉화군과 영주시 경계지역에 있는 문단1리 마을 주민 일동은 평소 농산폐기물과 폐자원 등을 틈이 모아 팔고 출향 자녀들이 도와주는 성금과 마을 근로 봉사 등을 통해 조성한 마을기금 일부를 기탁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소박한 시골인심을 전하고 있다.

이 마을의 특징은 전체 140호 중 밀약박씨, 경주이씨, 창원황씨 등 몇 개의 집성촌을 이루고 내성천 상류인 문단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12개의 작은 마을을 형성, 열두문단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특히 정명하(72) 이장과 박대원(59) 새마을

지도자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마을대표를 20년 이상 맡아오는 드문 사례로 마을 주민 모두가 크고 작은 일에 한 마음으로 단합하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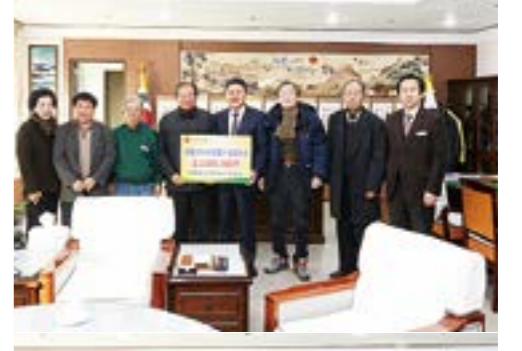
이날 성금을 전달한 정명하 이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나 따뜻한 희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문단 1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3년 말에도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500만원을 봉화군에 기탁해 잔잔한 감동을 전한 바 있어 삭막한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있다.

이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박시원 봉화군 주민복지실장은 "올 한 해 농촌마을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함께 훌륭한 의견을 모아 많은 성금을 흔쾌히 내놓을 수 있는 마을 주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봉화군향토회 김용목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22일 봉화군을 방문, 향토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2백만 원을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박노옥)에 전달했다.

고향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9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봉화군향토회



는 열악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사)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에 후원해 오고 있다.

김용목 회장은 "교육은 봉화의 성장 동력으로 장학금 후원이 많이 이어져 향토인재육성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 군위생활공감정책모니터 5기 이명숙 회장 장관상 수상

군위군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제5기 회장 이명숙 씨가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된 2015년 정부 3.0 생활공감정책 우수 모니터 시상식에서 우수모니터로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한 이날 시상식에서 이명숙 씨는 온라인 정책제안 우수 모니터 및 민원콜센터 제보, 정책모니터링 등 항목별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모니터로 선정됐다.

한편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참여·정책 모니터링 강화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사회구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1기 모니터단이 운영돼 현재 5기 모니터단이 활동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모니터 단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니터단을 재구성·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 경산지역 고교 전교회장·학생회, 사랑의 연탄 기부



경산지역 7개 고등학교 총학생회 연합 봉사 동아리 '경산학생연합회' 연탄 1200장 기부, 진량을 독거 노인 가정 4곳 연탄 나르며 온기

경산지역 고등학교 전교회장 등 학생회 임원들이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연탄 기부로 지역 내 독거노인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진량고·하양고 등 경산지역 7개 고등학교 총학생회의 연합 봉사 동아리 '경산시학생연합회' 회원들로, 지난 12월 28일, 60만원 상당의 연탄 1200장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현수)에 기부했다.

이번 연탄은 올해 수능을 치루고 대학진학

을 앞둔 고등학생 70여명이 지난 한달간 용돈 및 아르바이트비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이 날 0 학생들은 경산시 진량읍 일원에서 연탄배달봉사활동을 펼치고, 독거노인 가정 4곳을 찾아 가구당 300장씩의 연탄을 손수 나르며 웃음꽃을 피웠다.

진량고등학교 학생회장인 이시형(18)군은 "학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전한 이번 연탄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연말연시 연탄기부와 봉사활동은 지난 2013년부터 선배들이 참여해 온 의미있는 나눔활동인데, 앞으로도 후배들의 꾸준한 참여로 경산지역 고등학생들의 따뜻한 전통으로 계승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 상주 낙동초등학교 밴드부의 귀여운 재롱잔치 펼쳐

상주, 노인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

상주시 낙동면에서는 지난 24일 낙동면 물댄동산요양원에서 12월 할매할배의 날 '노인복지시설 방문의 날'을 맞아 낙동초등학교 밴드부 동아리를 초청,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전달하고 보다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흥겨운 공연과 수면양말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낙동초등학교 동아리활동으로 운영된 밴드부는 6월부터 시작해 일주일에 6시간씩 연습해왔으며, 초등학생 3학년에서 5학년 13명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드럼, 기타, 베이스 등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적 감성을 키우고 학교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면사무소에서는 지난 7월 14일 노인복지시설인 물댄동산요양원과 '할매할배의



날' 결연식을 맺고 격려로 방문,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정서지원, 시설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권영철 낙동면장은 "공연을 해준 낙동초등학교 관계자에게 감사하며,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어르신에게 배운 삶의 지혜를 실천하고 어르신 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 문경시, 2015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대상 수상



고운환 문경시장 좋은 단체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문경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권일수 TEL: (054)553-7588, 7589 H.P: 010-3522-1742

### ‘한샘’의 대구-경북 인재 사랑

한샘은 부역가구 전문 회사로 출발, 입식 부엌의 개념조차 낯설었던 우리 가정에 새로운 현대식 부엌을 소개하면서 국내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각인됐다. 그 한샘의 대구지역 한샘IK(인테리어키친) 대리점이 대구-경북지역 청년들로 대부분 충원하고 있어서 주목 받고 있다. 타시도에 근거를 둔 대구-경북지역 기업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좋은 본보기다.

직-관리직 등 170명을 한꺼번에 신규 채용했는데, 이들 중 90%가 대구경북 출신이라고 하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한샘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있다면 당연히 수도권의 청년들을 우선 채용할 것으로 믿어졌지만 한샘은 그렇지 않다.

다른 10% 사원도 서울 출신이지만 오픈 초기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한시적으로 근무한다고 한다. 내년 하반기 이후 지역 출신자를 추가 채용해 플래그십 사원 대부분을 대구경북 출신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한샘 인사관계자의 말은 더욱 감동스럽다.

이달 말 기준 대구경북 한샘부엌대리점과 한샘인테리어대리점 30여개 매장, 시공 협력사인 한샘서비스원 등에서 모두 765명의 지역 출신 사원이 근무 중이라고 한다. 2013년(241명) 대비 217% 늘어난 것이다.

한샘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63명의 계약직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문제 해결에도 앞장 서 온 기업이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고용부가 주관한 2015 일자리 창출 정부포상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사례를 시-도가 적극 홍보, 다른 기업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 ‘위안부’ 타결, 일본의 향후 태도가 관건

한일관계 개선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위안부 문제가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전격 합의한 것은 최악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두 나라 사이 해묵은 난제에 극적으로 해법을 찾은 것은 일본정부의 위안부문제에 대한 접근 자세가 바뀌었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일 외교사에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이후 정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으나 아베 총리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2015년 12월 28일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내년부터 다방면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윤병세 외무부 장관과 회담 후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군이 관여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아베 총리는 모든 분에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도 출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의 언행으로 볼 때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최종 합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말 것을 약속하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는 전적으로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린 일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지에 좌우될 일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설득하는 진정할 자세도 긴요하다. 어쩔 수 없겠으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전면 반대하는 측도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한데 대해 “더럽다”고 말한 속내를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아베 총리와 그 주변 인사들이 종래 행태를 일신하고 확실히 변하느냐에 달린 일이다.

# 인생을... 생각한다



### ■ 광역칼럼

###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탁승호

백선진사회합동기자협회 이사

달포 전에 동유럽여행을 다녀왔다.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8개국을 짧은 일정에 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마간산(走馬看山)격이었지만 보고 느낀 것은 많았다. 그중 하나가 그들의 화장실문화다.

별로 깨끗한 편도 아니면서 대부분 유료화장실이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 일인당 0.5유로(750원 정도)의 이용료도 만만찮은데다가, 잔돈계산 때문에 길게 줄을 서야 했고, 그러다 보니 급한 사람은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우리 일행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불과 20-30전만 해도 우리나라 화장실(특히 공중변소)은 불결과 악취의 대명사였다. 아마 50대 이상의 연배(年輩)라면 누구나, 오물이 튀어 올라 엉덩이를 더럽히던 재래식 화장실의 불쾌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어느 일본인이 남대문시장의 맛있게 소문난 삼계탕 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 집 화장실을 보고는 그냥 되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었을까. 고교 수업시간 중이었던가 선생님의 미국여행담이 떠오른다. 미국사람들은 방안의 변기에 앉아 불일을 보며 커

피도 마신다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얘기였다. 화장실은 그 나라의 얼굴이며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하던, 그래서 막연히 선진국을 동경하던 그 시절이 바로 잊고제 같은데...!

어느덧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는 세계의 화장실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진화됐다. 필자가 과문(寡聞)한 탓인지는 몰라도 북미나 유럽, 호주 등 선진국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만큼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서의 화장실을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공화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공중화장실들은 이미 화장실이기보다는 안락한 휴식처나 문화회관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다. 최첨단 수세식 좌변기와 세면기, 젖은 손을 말리는 전자건조기, 손 소독기 등을 비롯한 청결유지관리부품은 말할 것도 없고,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벽에 걸린 미술품이나 사진, 시(詩)를 감상하거나 자연(花분 꽃, 장식 꽃)을 즐기면서 잠시나마 생활에 찌든 피로를 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삶의 문화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입석소변기 앞에 마주서면 화장실 캠페인 표어가 눈에 들어온다. ‘남자가 흘러서 안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다 함께 같이 꾸면 꿈이 아니다’

이 얼마나 멋진 경구(警句)들인가!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몇 마디로 정곡(正�)을 찌르고 있다.

소위 너지(nudge)효과와 대표적 사례로 회자되는 소변기간의 파리스티커가 남자들의 사냥본능을 자극해서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파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면, 위의 경구들은 은근히 우리들의 지성과 감성에 호소해서 교양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서양식 너지효과가 일시적 대증요법(對症療法)이라면 위의 경구들은 두고두고 마음에 여운을 남기며 근원을 고치는 한의처방(韓醫處方)이나 생활철학과 같다거나 할까.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가 짧은 기간에 이처럼 선진화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행정안전부)는 물론 한국화장실협회,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등이 주도해서 화장실문화 선진화를 위한 거국적 운동을 벌이고, 매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제와 화장실 품질인증제 실시를 통해 화장실의 실용성부품, 청결성부품, 창의성부품, 예술성부품등을 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입버릇처럼 선진화, 선진사회 만들기를 외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화장실문화의 선진화노력을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 모두 합심해 생활수준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숭신수범해 나간다면 선진화는 생각보다 빨리 확산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선진화의 꿈을 꿀 수 있다면, 각자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 자신이 머물던 자리를 맑고 투명한 아름다운 자리로 남길 수 있다면, 선진사회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

### ■ 윤신근의 애완동물이야기

### 날고기 먹이지 마세요. 온갖 蟲蟲蟲<118>



윤신근

수의사

심이지 장충은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발견될 수 있다.

너무 작아 눈으로 식별하기 곤란하며 심한 빈혈, 허약, 혈변 등의 증세를 보인다. 음식물, 어미의 젖, 오줌,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종합 구충제를 투여하거나 구충 주사로서 구제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청결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편충은 실 모양으로 아주 작아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오염된 흙을 먹고 감염될 수 있으며 혈변, 빈혈, 허약,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총란 검사 뒤 종합 구충제를 투여하고, 개집은 항상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

해야 하며, 변은 그때그때 제거해 준다.

촌충은 희고 편편한 모양으로 앞뒤로 운동하며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감염된다. 죽은 촌충은 쌀이나 씨앗 모양으로 향문 주위나 피부, 털, 그리고 분변에 부착돼 있기도 한다. 감염되면 가끔 설사를 하거나 체중 감소 등의 증세가 보인다. 촌충 전용 약품을 먹이면 되지만 예방을 위해서는 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설치류의 접근을 피하며, 날고기나 털 익은 생선을 먹이지 말아야 한다.

곡사들은 너무 작아 눈으로 식별하기 힘들며 개, 고양이에게 감염된다. 감염 동물의 오줌이나 변을 통해 감염되며 혈변의 증세를 보인다. 분변 검사를 통해 설파제나 항곡사물제제를 먹이면 되나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톡소플라즈마는 너무 작아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높은 열과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빈혈, 황달, 기침, 호흡 곤란, 허약,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날고기나, 새, 개나 고양이 등

의 감염 동물의 분변을 통해서 감염된다. 분변 검사를 한 뒤 설파제 등으로 치료하며 날고기나 털 익은 고기 등을 먹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 날고기 등을 요리할 땐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며 요리 뒤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편모충은 개, 고양이 등 모든 동물이 감염되며 아주 작아 눈으로 식별이 곤란하다. 6개월 이하의 강아지는 심한 설사 증세를 보이거나 어떤 개는 감염돼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만약 사람이 감염되면 복부 경련과 팽만, 고열,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분변 검사뒤에 푸라졸리돈이나 메트로니다졸 등을 투여하면 쉽게 치료된다.

간충은 너무 작아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개, 고양이가 주 감염원이다. 식욕 부진, 폐렴, 혈변, 체중 감소, 허약, 피부 침투로 인한 피부 감염 등이 나타나는데, 특히 어린 강아지는 더욱 심한 증상이 나타난다. 분변 검사 뒤 다 이어벤다졸을 투여하면 좋다.

**DGFEZ**  
Gyeongsan Knowledge Industry District

지식산업의 집약지  
경산지식산업지구,  
DGFEZ의 미래를  
환히 밝힙니다!

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 단지

첨단  
인적자원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Daegu-Gyeongbuk Free Economic Zone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및  
첨단 메디컬 신소재 산업의 허브

### 경산지식산업지구

Gyeongsan Knowledge Industry District

www.dgfez.go.kr | 투자문의 053)550-1951

강한 신문 **광역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정주필 | 대표 김성용 | 편집인 겸 편집국장 최학봉 | 주필 차옥환

대구시 중구 동성로5길 25(8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시회부 053-253-0060	지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턴? U턴!

꿈을 향한 만유인력의 법칙




## 학력 U턴 대표 대학 - DHC

개교 44년 동안 7만명이 넘는 프로페셔널을 양성해온  
국내 최고의 보건특성화대학으로서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도 프로페셔널의 꿈을 찾아  
다시 지원하는 학력 U턴 대표 대학입니다.  
새로운 꿈의 출발점,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보건의료·산업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첫 발을 도약합니다.

구분	수시 2차	정시 1차
원서접수	2015.11.3(화) ~ 11.17(화)	2015.12.24(목) ~ 2016.01.05(화)
면 접	2015.11.21(토)	2016.01.08(금)
합격자발표	2015.11.27(금)	2016.01.15(금)
합격자등록	2015.12.11(금) ~ 12.14(월)	2016.01.29(금) ~ 2016.02.02(화)
미등록충원	2015.12.15(화) ~ 2015.12.23(수)	2016.02.03(수) ~ 02.27(토) 18:00까지

| 입학상담 | 053)320-1800

 대구보건대학교